metro
메트로 2014년 4월 9일 수요일 제2852호 www.metroseoul.co.kr

대기업 1분기 실적 좋아 증시 '훈풍'

삼성전자 영업익 8조4000억 현대차 전년동기비 10% 증가

삼성전자가 무난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가 지난해 실적 쇼크의 악몽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적 발표를 준비 중인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등도 기대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코스피가 지난 3년간의 박스권에서 벗어나 더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피어올랐다.

8일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영업이익이 8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0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증권사의 실적 추정치 평균인 8조4589억원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이다.

이제 시장의 눈은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등 시가총액 상위사들로 옮겨갔다.

현대차의 1분기 영업익은 전년 1분기보다 9~10% 늘어난 2조~2조1000억원대로 예상되며 기대감을 받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 시장 예상치는 521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보다 11%가량 줄어든 영업익이지만 시장에서는 포스코가 1분기 바닥을 다지고 점차 실적 개선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포스코처럼 당장 1분기 실적은 개선되지 않아도 남은 2~4분기를 거쳐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기대감에 목표 주가가 올라간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증권사 5곳 이상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신한금융투자는 LG디스플레이의 1분기 영업익이 59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77% 감소하겠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1조2580억원으로 기존 추정치보다 11%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증권 역시 LG디스플레이의 2분기와 연간 영업익이 기대된다며 종전에 비해 각각 37%, 12% 상향한 2829억원, 1조3300억원의 전망치를 내놓고 목표가도 올려 잡았다.

LG이노텍 역시 증권사 7곳 이상이 향후 실적 성장세를 염두에 두고 목표가를 올려 잡았다.

하이투자증권은 LG이노텍이 LCD TV 시장의 성장 수혜를 받아 올해 LCD TV 관련 영업익이 전년 동기보다 280% 급증한 372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증권은 LG이노텍의 올해 영업익 예상치를 기존 수치보다 9% 높아진 2301억원으로 제시했다.

신한금융투자는 LG이노텍의 LED 조명 부문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내년 3분기 이후 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하고 2016년에는 연간 기준으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봤다.

포스코ICT는 자회사들이 살아나면서 주목을 받았다. 신한금융투자는 포스코ICT에 대해 포스코LED와 포뉴텍 등 주요 자회사 실적이 좋아지면서 1분기 영업익이 전년보다 89.4% 증가한 7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IT업종을 제외하고 시장의 기대감을 받는 업종은 주로 경기 영향을 덜 받는 내수 쪽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유틸리티 업종인 한국전력의 올해 영업익이 6조11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며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6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한국전력이 실적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증권사 6곳 이상이 최근 수익성 개선을 이유로 목표가를 높이며 유통 업종의 유망주로 띄워졌다. 교보증권은 아모레퍼시픽의 1분기 영업익이 1546억원으로 전년보다 10% 늘 것으로 봤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인 1505억원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면세점과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가 늘면서 실적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됐다.

1분기 실적 시즌의 순조로운 출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코스피지수는 2009선 고지를 넘는 데 실패했다. 외국인의 연클째 순매수 행진에 이틀째 올랐지만 1993.03에 장을 마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한-호주 FTA 정식 서명 박근혜 대통령과 토니 애벗 호주 총리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또 정치 안보, 창조경제·규제개혁, 에너지 자원 등 경제 통상,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G20주요 20개국) 협력 등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명된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1번째 FTA(발효 FTA 9개, 서명 FTA 2개)다. <관련기사 9면>

/연합뉴스

스마트폰 과다사용땐 "사이버괴롭힘"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불링(cyber-bulling: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에 노출되는 사례가 일반 사용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내 청소년 4998명(초등학교 4학년~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과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인터넷 접속을 위해 PC(32.7%)보다 스마트폰(66.7%)을 더 많이 사용했다. 사용 용도는 여가(40.2%), 커뮤니케이션(22%), 정보 취득(19.6%) 순이었다.

청소년 5명 중 1명이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2.9%)이거나 잠재적 위험군(16.1%)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험군은 피해 경험이 9.1%, 가해 경험이 14.7%로 일반 사용자(각각 3.1%, 2.5%)와 비교할 때 피해 경험 비율은 약 3배, 가해 경험 비율은 6배 높았다.

남학생(15.9%)보다 여학생(22.8%)에게서 스마트폰 중독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은 가해 경험률(3.3%)이 피해 경험률(2.4%)보다 높은 반면, 여학생은 피해 경험률(4.8%)이 가해 경험률(4.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중생 집단은 피해 경험(7.5%)과 가해 경험(6.8%)이 전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학령별로는 고등학생(26%), 중학생(24.5%), 초등학생(7.7%) 순으로 고학년일수록 스마트폰 중독률이 더 높았다.

사이버불링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 중 71.6%는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이 넘는 59%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해 괴롭혔고, 가해 이유로 '우연히 가담했다'는 대답(43.7%)이 가장 많았다.

/김민준기자 mjkim@

귀여운 선거 독려 캠페인 8일 대전 서구 도로가에 걸린 6·4 지방선거 홍보 현수막 앞에서 유치원생들이 투표 독려 글자 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공천 국민·당원 뜻 따르겠다"

새정치연합 10일까지 여론조사·투표로 결정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8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재 폐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과 당원들의 뜻을 물어 결론이 나오면 최종적 결론으로 알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내 반발 등을 감안한 기존의 무(無)공천 원칙에 대한 출구 전략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김 공동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정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원칙과 소신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며 "국민과 동지들의 뜻을 바탕으로 당내·외 다양한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고 당 역량을 집중시켜 한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과가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제 원칙과 소신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민과 당원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선거를 눈앞에 두고 무한정 논란만 계속할 수 없다.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존재하는 만큼 당내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를 바꿔보려는 진정성에 대해 국민과 당원의 적극적 참여와 현명한 판단을 믿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회담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 "약속 파기 세력의 성찰을 기대하기는 너무 늦었다. 대통령은 회동을 거부하고 여당은 말 뒤집는데 뭘 더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이날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 50%+당원 투표 50%' 방식으로 무공천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9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실시한 뒤 10일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조현정기자 jh@metroseoul.co.kr

따라하기 예능 프로그램 실태

기자 수첩
김지연
<연예스포츠부 기자>

요즘 예능 프로그램들은 '서바이벌' '연애' '아이'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한 방송이 인기를 끌면 비슷한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때문이다.

한때 방송가에 불어닥친 오디션 열풍을 타고 제작된 MBC '위대한 탄생'과 SBS 'K팝스타'는 원조 격인 엠넷 '슈퍼스타K'의 아류라는 딱지가 늘 따라붙었다.

간혹 '패스트 팔로어'로서 원조의 아성을 따라잡은 경우도 있다. KBS2 '불후의 명곡'은 MBC '나는 가수다'와 흡사한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세부적 내용에서 차별을 둬 시청자 확보에 성공했다. 하지만 '나는 가수다'의 기본 형식을 따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었다.

최근 들어선 JTBC '마녀사냥'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듯 비슷한 내용을 다룬 연애 토크쇼가 줄줄이 제작되고 있다. tvN '로맨스가 더 필요해', KBS W '애타는 수다 쇼', KBS2 '나는 남자다' 등이 대표적인 후발 주자다.

'로맨스가 더 필요해' 윤대주 PD는 "우리는 다양한 연령대의 연애를 다룬다"며 차이점을 강조했지만 기본 형식은 '마녀사냥'과 유사하다. 유명 인사의 아이들이 등장하는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MBC '아빠! 어디가?'를 따라 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시청률만 올릴 수 있다면 아류 프로그램을 서슴지 않고 만드는 방송사의 태도가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빚 1100조 넘어서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가 11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부채는 1117조3000억원으로 2012년(902조1000억원)보다 23.9%(215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약 960만원의 정부 빚을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셈이다.

중앙정부의 자산은 1666조5000억원, 부채는 1117조3000억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채 중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에 대한 지출 예상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000억원으로 2012년(436조9000억원)보다 159조4000억원 늘었다. /조현정기자

뉴스 & 뉴스

국회의원 배지 문양 '國→국회'로

● 국회의원 배지 문양에 한자로 돼 있는 國(국) 자를 '국회'로 한글화하는 규칙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운영위는 '국회기 및 국회 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회는 법사위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감사원 전남·제주 공사감독 소홀했다

●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항구 관련 공사를 하면서 엉터리 부실 설계나 시공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전남·제주도의 도로나 항구 관련 공사 업무 등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 부실 설계나 시공 등 총 66건의 업무 태만이나 부당 처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리에겐 무인기 송골매 있다" 8일 오전 경기도 한 공중정찰훈련장에서 한국형 육군 무인기 송골매의 비행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송골매는 전장 5m, 폭 6.5m로 속도는 시속 150km/h, 작전 반경 100km, 체공 시간은 4~5시간이며, 주·야간 탐색 및 자동 추적 기능을 갖춘 감지기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북 핵실험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한·미·일 6자회담 대표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신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마친 후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한·미·일 3국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단합되고 실효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위해 대화 재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도발을 하는 경우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나가는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황 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무부 청사에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별도의 한·미 양자회담을 한 데 이어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비공개 한·일 양자회담을 가졌다.

한·일 양국이 북핵문제를 놓고 양자회담을 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하라 국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민준기자 mjkim@

무인기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 출격

최근 잇따라 발견된 소형 무인항공기는 군사분계선(MDL)에서 15~20km 떨어진 북한군 전방 부대에서 날려 보낸 것으로 분석됐다.

무인기 중앙합동조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8일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 떨어진 소형 무인기는 MDL에서 15~20km 떨어진 북한지역에서 날아온 것으로 종합적인 평가가 내려졌다"며 "중앙합동조사단에 참여한 군과 민간 전문가들이 무인기 엔진과 연료통, 기체 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결과"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번에 우리 측 지역에서 추락한 무인기들을 1000여 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자폭형 무인타격기는 100여 대가량 전방 부대에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 추락한 무인기가 공격용으로 개조되면 대전~울진 축선까지의 군부대와 주요 국가전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가 공격기로 활용된다고 해도 겨우 2~3kg 정도의 TNT를 실을 수 있어 그 정도 자폭 기능을 가지고는 큰 위해는 끼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민준기자

제2롯데월드 공사장 또 사고

화재 한달여 만에 배관작업하던 인부 사망

지난 2월 16일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47층 용접기 보관함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서울시가 직접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밝힌 이후 한 달여 만에 공사 현장에서 인부 1명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께 송파구 제2롯데월드 엔터테인먼트동 12층 옥상에서 혼자 배관 작업을 하던 황모(38)씨가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관 설비 작업 중 이음매 부분이 압력으로 인해 폭발하면서 황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작업장 안쪽에서 황씨 혼자 작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인명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롯데물산은 5월 임시 개장을 목표로 제2롯데월드 공사를 서둘렀지만 최근 공사장 사고가 잇따라 임시 개장은 어렵게 됐다.

지난해 6월 25일 타워동 43층에서 거푸집이 추락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 같은 해 10월 1일엔 저층부 캐주얼동 북쪽 11층에서 철제 파이프가 지붕에 떨어져 시설이 파손되고 지나가던 시민이 찰과상을 입었다.

올해 2월 16일엔 고층부 월드타워동 47층 철골 용접기 보관함에서 불이 나 서울시가 롯데 측의 임시 개장 계획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각종 안전사고와 교통에 대한 대책 없이는 임시 개장이 불가하다며 롯데 측,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달부터 고층부에 대한 안전 점검 중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임시 개장을 목표로 한 저층부에서 발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층부 3개 동은 롯데 측에서 자체적으로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었다"며 "저층부 조기 개장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계속 알려졌지만 이런 사고가 계속 나면 임시 개장은 사실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임시 개장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신혜기자 mjian@metroseoul.co.kr

버스 안에서 취업상담 7일 대전 한밭대학교에서 열린 '스펙초월 채용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청년버스 안에서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청년버스는 취업 전문가들이 탑승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취업 준비생들에게 현장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에서 살인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국내로 추방된 서모씨와 강모씨가 국내에서 대마를 다량 재배해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

가정집서 대마초 재배·흡연 적발

美서 추방된 전과자로 밝혀져

미국에서 살인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국내로 추방된 전과자가 국내서 대마를 다량 재배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서울·경기 지역의 일반 가정집에서 대마 105그루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47)씨와 강모(26)씨를 구속하고 이들이 고용한 김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와 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대문구와 경기도 남양주에 각각 빌라와 1층짜리 주택을 임차해 대마 재배시설을 갖춰놓고 대마 105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과거 미국에서 약 20년 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07년 9월 국내로 추방됐고 강씨 역시 대마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2009년 10월 귀국했다.

이들이 수확한 대마는 총 1kg(5000만원 상당)로 4000명이 흡연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유연준기자

고화질 사진 음란사이트 운영 입건

높은 시급을 미끼로 고용한 여성의 음란한 사진 수천 장을 올린 회원제 음란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고화질 사진 전문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아마추어 사진작가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에게 고용돼 사진 모델로 나선 여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도 모처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XX 코리아'라는 음란 사이트를 운영해 약 3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나 길거리 캐스팅 등을 통해 6만~8만원의 시급을 미끼로 여성 8명을 모은 후 교복, 망사스타킹 등을 입히고 5400여 장의 음란 사진을 촬영했다. 이어 남성 회원 5000여 명을 끌어모아 월 3만원의 회원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다혜기자

로봇청소기 핵심기술 중국으로 유출

국내 유명 가전회사에서 개발한 로봇청소기 핵심 기술이 이 회사의 전 연구원들에 의해 중국 가전회사로 유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청소기 기술개발연구원 윤모(45) 강모(38)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중국 브로커는 지난해 4월 이 회사에서 12년간 수백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로봇청소기 핵심 기술을 요구하며 고액 연봉, 주택·승용차 제공을 제안했다.

1993년 입사해 개발연구원으로 근무한 윤씨는 핵심 기술이 저장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몰래 빼낸 뒤 같은 해 7월 중국의 가전회사에 기술개발연구원으로 입사했다. 강씨도 노트북 컴퓨터에 핵심 기술 자료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빼돌리고 나서 10월 퇴사, 한 달 뒤 윤씨처럼 기술개발연구원으로 입사했다.

이들은 중국 가전회사로부터 국내 가전회사의 2배 정도인 1억5000만여 원의 연봉을 받았으며 주택과 고급 승용차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다혜기자 ydh@

시위현장 소음관리팀 만든다

경찰청은 8일 집회나 시위 현장의 소음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 경찰에 소음관리팀을 구성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현재 소음 관리는 진압복을 입은 경비 경찰이 맡고 있지만, 접근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마찰이 빚어 문제가 됐다. 이에 경찰은 별도 식별을 단 조끼를 입고 활동하는 소음관리팀을 조직하기로 했다.

경찰은 기타 지역의 소음 상한선을 현행 주간 80dB에서 75dB로, 야간 70dB에서 65dB로 5dB씩 낮추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윤다혜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풍수 인테리어 주제로 강좌

서울시 강서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구민회관에서 풍수연구가 이상준 강사를 초청해 '우리 집 기 살리는 풍수 인테리어'라는 주제로 제87회 지식비타민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한눈에 보이는 홍대지도 배부

서울시 마포구는 홍대 상세 지도 및 맛집과 숙박업소 광고를 담은 '한눈에 보이는 홍대지도'를 총 6만 부 제작, 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지도 앞면은 홍대거리 상세 지도, 뒷면은 맛집과 숙박업소 광고로 구성돼 있다.

행복일자리 늘리기 나서

서울시 강남구가 올해 행복일자리 2만5000개를 만들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2만 개 일자리 목표 100% 달성에 이어 올해도 25% 증가한 2만5000개를 목표로 정하고 3대 주요 전략과 8개 추진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실질 학업중단 학생 감소

서울지역 5000여명…상담 통한 숙려제 시행 효과 나타나

2013학년도 서울지역 초·중·고등학생 5000여 명이 가정환경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학년도(2013년 3월~2014년 2월) 시내 초·중·고교의 실질 학업 중단 학생이 전체 재학생 110만7766명의 0.5%에 해당하는 5454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실질 학업 중단 학생은 가사·부적응 유예·자퇴·퇴학 등의 이유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학생을 의미한다. 단 질병·사고 등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제외된다.

2013학년도 전체 학업 중단 학생은 1만3920명으로 실질 학업 중단 학생이 이중 39.2%를 차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가 40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는 1168명, 초등학교는 261명 등이었다. 다만 전년도와 비교하면 초·중·고교 모두 감소했다.

2012학년도 실질 학업 중단 학생은 전체 학업 중단 학생의 39.6%인 6391명이었다. 고교는 2012학년도 4643명으로 618명, 중학교는 1406명으로 238명, 초교는 342명으로 81명 줄었다.

학업 중단 학생이 감소한 것은 2012년 6월부터 학교를 그만두기 전 상담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한 것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내 고등학교 기준 지난해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학생 996명 중 29.1%에 해당하는 290명이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2012년 22.3%보다 6.8%포인트 오른 수치다.

학업 계속률을 학교 유형별로 보면 일반고가 30.3%로 가장 높았고, 자율고 29.2%, 특성화고 25.6%, 특수목적고 0% 순이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학업중단숙려제 대상을 고교생에서 초·중학생으로 확대하고 숙려 기간을 15일 내외에서 최소 2주~최대 3주로 연장했다. 또 시내 대안교실은 11개교에서 33개교로 확대됐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완도해조류박람회 개막 눈앞 2014 완도국제 해조류박람회 개막이 3일 앞으로 다가온 8일 오전 전남 완도군 완도읍 완도항 해조류박람회장에서 팸 투어 행사가 열렸다. 어린이들이 주제관에 설치된 해조류 수족관을 관람하고 있다. /뉴시스

돈 받은 한빛원전 직원 2명 체포

검찰 부품납품 청탁 혐의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8일 원전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빛원전 과장급 직원 2명을 체포해 부산으로 압송, 본격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원전 업체 P사에서 부품 납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40분부터 수사관들을 전남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전에 보내 사무실을 수색하고 부품 납품 관련 장부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P사는 월성원자력본부에 부품을 납품하며 이청구(59)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과 중간 간부 4명에게 수천만원씩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 곳이다.

검찰은 월성원전 납품 비리와 관련한 중간 간부 4명을 최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 부사장을 1차례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조만간 한 차례 더 소환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인신보호관제 도입 개정안 의결

정신병원과 장애인시설 같은 수용시설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수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인신보호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수용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위법하게 수용된 것인지와 수용 시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제 청구' 관련 정보를 고지받았는지 등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인신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상 수용시설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수용이 가능한 시설로 정신병원·장애인시설·노인요양원 등이다.

인신보호관은 필요하면 피수용자와의 면담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시설 운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감시로 하여금 피수용자에 대한 구제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조현정기자 hjc@

희망의 씨앗 생명나눔 홍보 보건복지부는 방송인 신동엽 씨를 '제3대 희망의 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신동엽은 2016년 4월 3일까지 2년간 생명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신동엽은 2009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오바마 '교육카드'로 국정 돌파구

실무교육 강화대상 24개 학교·기관에 지원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제와 함께 교육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내세우며 국정 운영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근교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 미 전역에서 실무 교육 강화 대상으로 선정된 24개 학교 및 교육기관을 발표했다.

이들 대상 학교와 기관에는 약 1억700만 달러(약 1130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제공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찾은 블레이든스버그고교에는 700만 달러가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미래가 요구하는 직업에 대비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메릴랜드주 블레이든스버그고등학교 여학생들이 7일(현지시간) 학교를 찾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뒤 자신의 손을 살펴보며 감격스러워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기업의 실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라고 어는 풀이했다. 이어 그가 학교를 찾은 것은 오바마케어(새로운 건강보험) 가입 시한인 지난달까지 정부 목표치인 7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은 데 따른 자신감의 표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국인을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취지로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오바마케어는 시행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야당인 공화당은 가입 신청 홈페이지 접속 오류 등을 지적하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인의 시각이 완전히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교육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부담스러운 오바마케어 대신 또 다른 현안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겠다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는 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분간 교육과 더불어 일자리 문제 등 경제 이슈를 핵심 현안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그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계약직 연방정부 직원의 최저임금을 올린 바 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토마토 씨름장서 살벌싸움 8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에서 마을 주민들이 바닥을 토마토로 가득 채운 '토마토 씨름장'에서 씨름을 하고 있다. 씨름가에 사용된 토마토는 흠집 등이 있어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신화 연합뉴스

해저 화산 폭발로 두개 섬이 합쳐져

지난해 일본 해저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로 생긴 섬이 팽창을 계속해 인근에 있는 다른 섬과 합쳐졌다.

7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미 항공우주국(NASA) 자료를 인용, 지난해 11월 오가사와라제도 니시노섬 남동쪽에서 발생한 해저 화산 폭발로 생긴 섬이 주변 섬과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 최근 관측됐다고 전했다.

인근에 있던 다른 섬 역시 40년 전 화산 폭발로 생겨난 것이다. 이 지역은 일본 북부에서 알래스카, 시베리아, 뉴질랜드 남부로 이어지는 환태평양 지진대인 이른바 '불의 고리'에 있다. 새로 합쳐진 섬의 높이는 해상 60m 정도다. 지난해 12월 관측된 높이의 세 배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니시노섬 남동쪽 부근에서 두 섬의 한쪽 끝이 붙어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CNN

과학자들은 지난해 11월 화산 폭발로 섬이 생겨났을 때 얼마 있다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섬이 용암 분출을 계속하며 크기가 커지고 있어 예상보다 오래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설명했다.

해저 화산 폭발 전문가인 켄 루빈 하와이주립대 마노아 캠퍼스 교수는 "섬이 얼마나 오래 존속할지는 화산이 얼마나 빨리 분출하느냐에 달렸다"면서 "분출이 멈추기 전까지는 존속 여부를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Для ненужных щенят установят беби-боксы

버린 동물 보호 '베이비 박스' 설치

metro Russia

조만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 버려지거나 길 잃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동물 베이비 박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자선 동물보호기금 '주치시나'의 안나 바이만 대표는 "예카테린부르크에는 5000마리에서 1만 마리의 집 없는 동물들이 있다"며 "주인에게 버림받은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제하기 위해 베이비 박스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바이만 대표는 지난달 초 예카테린부르크에 설치된 '아기상자'에서 동물 박스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했다. 아기 상자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부모들이 아이를 넣는 상자다. 이 상자에서 발견된 아이들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보내진다.

시베리아 최초의 반려동물 장례업체 '시드 파하티'도 베이비 박스 프로젝트에 동참한다. 시드 파하티의 홍보 담당자인 빅토리아 벤카로바는 "건강한 반려동물들이 주인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버려져 안락사시켜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동물들이 길거리에서 사고로 죽지 않고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베이비 박스 설치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예카테린부르크의 제1호 동물 베이비 박스는 현재 제작이 완료된 상태다. 1.5m 높이에 고양이와 강아지 모양을 본떠 만든 상자 내부에는 동물들이 다치지 않도록 푹신한 쿠션이 깔려있다.

동물보호기금 '동물에게 도움을'의 마리나 사리콜리나 대표는 이와 관련, "의도는 좋지만 상자 설치가 현 상황의 탈출구가 될 수는 없다"며 "동물들의 임시 보호소가 아닌 영구적인 보금자리를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린 골로즈첸코 기자 · 정리=조선미기자

'스타 양성소' 인터넷 사이트 개설

metro France

프랑스 툴루즈에서 스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오디션 기회를 제공하는 두 남성이 화제다.

올해로 각각 26, 27세인 레미 들라와 안 디안은 6개월 전 '스타 양성소'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었다.

툴루즈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한 둘은 특별한 계기를 통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 안은 "동생이 개그맨 지망생이었다. 그래서 오디션을 볼 때마다 항상 같이 다니던 중 연예인이 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알게 됐다. 재능이 있다고 모두 스타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안은 이를 계기로 그의 친구인 레미와 함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비디오를 업로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

유튜브, 마이스페이스 등을 보면 스타를 꿈꾸는 사람들이 만든 동영상이 수백만 편에 달한다. 사이트 '스타 양성소'의 경우 노래, 개그, 춤, 음악으로 구분돼 있어 원하는 분야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다. 올라온 동영상은 소속사들과 네티즌들이 보게 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도 가능하다. 첫 업로드일 경우 무료지만 이후엔 동영상 하나당 4.79유로(약 7200원)를 내야 한다.

레미는 "TV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유행하는 걸 참고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오디션 사이트를 운영하면 충분히 성공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이트는 아직 초보 단계인 상황. 둘은 올해 말까지 더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예정이다.

/줄리 롱 기자 · 정리=명주리 인턴기자

market index <8일>

코스피	코스닥
1993.09	554.07
+3.33	(-0.16)

금리	환율
2.88	1052.20
+0.05	(-3.20)

뉴스&뉴스

카르텔 제재 대응안 세미나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에서 카르텔 제재가 심해지면서 과징금을 비롯한 형사처벌 등 기업의 손실이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법무법인 화우, K&L 게이츠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EU 및 한국에서의 국제 카르텔 제재 강화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EU·중국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카르텔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이 3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국제 카르텔에 연루되면 과징금뿐 아니라 임직원 형사처벌, 손해배상 소송, 기업 이미지 하락 등 큰 손실을 가져오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철기자

네이트판 아고라 코너 신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서비스하는 포털 네이트가 8일 '네이트 Q' 코너를 신설했다.

네이트 Q는 매일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이슈에 대해 이용자들이 생각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네티즌의 투표와 댓글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자들의 편리한 참여를 위해 모바일과 PC에서 로그인 없이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질문과 관련된 뉴스·판·동영상 등의 게시물도 확인할 수 있다.

네이트 Q는 매일 한 주제씩 운영되며 페이스북 네이트 계정(https://www.facebook.com/aboutnate)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외부 회원들도 편하고 부담 없이 주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SK컴즈는 이번에 선보인 네이트 Q와 같이 이용자들이 편하게 참여해 함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공론화된 토론의 장을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이다. /박성훈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91~3
부산광고문의	051)650-2100
독자센터	02)721-9865

2005년 5월 24일 정기간행물등록 서울특별시 가00036

카드 발급 첫 감소… 지난해 2억900만장

지난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친 카드 발급 장수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친 발급 장수는 2억903만 장으로 전년(2억1846만 장)보다 943만 장가량 줄었다.

이처럼 카드 발급 장수가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 2004년 이래 처음이다. 이는 카드 결제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금융 당국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대책과 휴면카드 정리·자동해지 제도 도입 등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도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등의 영향으로 신용카드 발급 장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모바일 지급 결제는 지난해 이용 규모가 크게 늘었다. 모바일뱅킹 자금 이체는 하루 평균 200만 건(1조4000억원)으로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도입 이전인 2009년보다 7.5배 늘었다. /김민지기자

피처폰, 청춘의 세컨드폰 'ON'

"공부 전념 위해" 대학생·구직자 등 사용 늘어
수익성 이유로 단말기 줄어 알뜰폰 반사이익

각종 시험과 공채가 몰리는 4월에 피처폰이 세컨드(second)폰으로 불리며 각광받는 중이다.

최근 한 취업포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 10명 중 1명은 피처폰 전환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조사와 통신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피처폰 서비스를 줄이고 있어 소비자 선택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알뜰폰이 반사 효과를 얻는 상황이다.

오는 19일 9급 공무원 공개 채용 필기시험을 앞둔 고시생 이만선(36)씨는 "스마트폰이 편리한 점도 있지만 주로 불필요한 인터넷 검색과 모바일 메신저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서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피처폰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씨는 "공부할 때는 피처폰, 방과 후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쓰는 수험생이 많다"고 덧붙였다. 대학교 4학년 정학재(25)씨는 "중간고사와 취업 준비를 위해 피처폰을 세컨드폰으로 쓰는 중"이라며 "스마트폰은 와이파이를 연결해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처폰 선택의 폭은 넓지 않다. 제조사와 통신 3사는 수요와 수익성을 이유로 피처폰 생산 및 서비스를 감축하고 있다. 국내 피처폰 생산 물량의 95% 이상은 해외에 수출된다. 국내 수요를 알뜰폰(MVNO)이 메워가고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은 갈수록 줄어든다.

8일 강남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을 찾아 피처폰 구입을 묻자 매장 직원은 "판매 가능한 모델이 몇 개 안 된다"면서 "통신 3사 신규 개통은 어려워 알뜰폰을 추천한다. 한 달 요금이 단말기 할부 합쳐서 2만원 미만이라 저렴하다"고 말했다. 또 "요즘 젊은 고객들의 피처폰 문의가 30% 이상 늘어난 것 같다. 요금을 아끼고 싶거나 보안이 걱정되는 고객이 피처폰을 많이 사간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알뜰폰 가입자 수는 전달보다 14만 명 증가한 284만8000명이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5.21%로서 2011년 7월 알뜰폰 판매 시작 이후 처음으로 점유율 5%를 돌파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휴대전화 흐름이 스마트폰으로 옮겨간 지 오래다. 제조사들의 피처폰 생산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면서 "다만 피처폰 개통이 원활한 알뜰폰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다음 단계 알뜰폰 가입자 300만 명 돌파는 무난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정문경기자 unlaut@metroseoul.co.kr

코스피 1990선 회복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소폭 상승하며 1990선을 회복했다. 8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3.33포인트(0.17%) 오른 1993.09에 장을 마쳤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가계대출 잔액 사상최고
688조1400억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2월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88조14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원이 늘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5.1%(33조7000억원) 늘었다.

이는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12월(687조1864억원)에서 올해 1월(685조1907억원) 소폭 감소한 뒤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대출 잔액을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주택담보대출(419조8000억원)이 1조8000억원 늘고 마이너스통장, 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 대출(268조3000억원)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2월 주택매매 거래량이 급증해 주택담보대출이 대폭 늘었다"면서 "1월 설 연휴와 관련된 자금 소요가 2월에 결제일이 돌아와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 대출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5% 관세 뗀 국산차 호주 수출길 활짝

양국 FTA 공식 서명
중소형차 먼저 혜택

한국과 호주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체결되면서 자동차 수출길이 활짝 열릴 전망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류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8일 한·호주 FTA에 공식 서명했다.

한·호주 간 FTA 발효와 동시에 우리 주력 수출품인 중소형 승용차(1000~1500cc 휘발유 소형차, 1500~3000cc급 휘발유 중형차)와 5t 이하 소형 트럭에 대한 관세 5%가 철폐되고 나머지 품목도 2년 뒤 관세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이번 양국 간 FTA 체결과 관련, 국내 자동차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호주는 우리 자동차 업계의 4위 수출국이다. 작년 수출 물량은 총 13만5551대이며, 수출 금액은 완성차 21억300만 달러, 부품 2억7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자동차 6만9000여 대, 기아자동차 2만6000여 대, 한국GM 4만여 대의 순이다. 특히 현대차는 i3, 아반떼, 투싼, 싼타페 등을 앞세워 호주에서 전체 자동차 판매량 4위를 기록 중이다. 브라이드, K3, 스포티지 등을 앞세운 기아차는 11위를 달리고 있다.

이들 주력 차종은 세단뿐 아니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까지 모두 배기량 3000cc 미만이기 때문에 관세 혜택 범위에 포함된다.

관세 5% 철폐 시 4.8%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보다 강화됨으로써 호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유럽연합(EU)에 비해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호주는 차량 100만 대 중 70만 대를 수입하는 대형 시장"이라며 "우리 자동차 업계는 관세 부담을 덜어낸 만큼 보다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눈길 한번이 힘이 됩니다

질병, 실직, 파산 등으로
갑작스런 생활고에 처한 이웃을
☎120에 알려주세요.

서울시가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 이렇게 지원 받으세요 !

1.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4인가구 기준_월소득인정액 [illegible]천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보호 가구 (4인가구 기준_소득 [illegible]천원 이하, 재산 1억원 이하) → '서울형기초보장제도'
3. 주소득자 사망·실직·부상 등 위기가정 (4인가구 기준_소득 2,446천원 이하, 재산 [illegible] 이하) → '긴급복지지원'
4.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 (4인가구 기준_월소득인정액 [illegible]천원 이하) → '희망온돌사업'
5. 일정한 거처가 없는 가구 → '주거위기가구 지원' (임대·월세 보증금 최대 500만원 지원)

정용진 '지식 콘서트' 강연자로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지식 향연 콘서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KB 어쩌다가 '사건 뱅크'

금감원 종합점검 하반기서 다음달로 앞당겨

금융 당국이 국민은행의 내부 통제 사고에 대해 다음달 중 전면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국민은행의 직원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은행 내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당초 올해 하반기에 잡혀있던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를 앞당겨 이르면 내달 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이 특정 은행에 대해 내부 통제를 종제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종합 검사를 조기에 하는 이유는 국민은행에서 직원 내부 비리와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아 내부 통제 부분을 대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을 총괄 관리하는 임영록 KB금융 회장부터 이건호 국민은행장까지 최고경영자들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 종합 검사를 하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최근 국민은행에서 너무 많은 사고가 터져 더는 넘겨버릴 수 없게 됐다"면서 "종합 검사를 앞당겨 올 2분기 중에 하면서 내부 통제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경우 그동안 부문 검사나 특별 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들춰 봤는데 이제는 총체적으로 내부의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은행은 국민주택기금 위탁 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0억여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또 지난해 도쿄지점에서 5000억원대 부당 대출 혐의로 당시 도쿄지점장 등이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국민카드의 5000만여 명 고객정보 유출로 국민은행도 1000만여 명의 정보가 빠져나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있다. 국민은행 직원 이모(52)씨는 부동산개발업자 김모씨에게 9709억원 규모의 허위 입금증을 발부해줬다가 적발되는 어이없는 사고도 발생했다. 최근에는 국민은행 팀장급 직원 A씨의 친인척들이 지난 수년간 A씨에게 돈을 20억여 원가량 맡겨왔으나 이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김민준기자 min @metroseoul.co.kr

한은 '인사태풍' 몰아칠 조짐

이주열 총재 취임 일주일 국실장급 7명 인사 단행

이주열 총재 체제로 바뀐 한국은행에 '인사 태풍'이 휘몰아칠 조짐이다. 한은 안팎에서는 조만간 1급 인사를 포함한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외부 한은 간부의 '도미노 이동'이 현실화될지 여부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취임한 지 시흘 만에 7명의 국·실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비서실장과 발권국장은 지난 이동철인천본부장은 기획협력국장으로 본부에 복귀했다. 청와대 태스크포스(TF) 내 정책담에서 통화정책 등에 대한 작업을 준비했던 강현기 통화정책국 자본시장팀장도 비서실장으로 이동했다. 커뮤니케이션국장에는 차현진 기획협력국장이, 정상돈 비서실장은 통화정책국 부국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한은의 '인사 대풍'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재는 지난 1일 취임사에서도 조직과 인사의 전면 재점검을 거론한 만큼 인사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그동안 내부 경영 부문에서 이뤄진 다양한 개혁 조치 가운데 긍정적인 면은 발전시키겠다"면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을 드러낸 조치는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또 취임식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인사, 경영 관리 시스템 개혁을 곧바로 하려고 한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민준기자

실손 중복가입 안내강화 등 보험업법 개정안 14일 시행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안내가 더 확대되고 보험 상품을 팔면서 다른 종을 끼워 넣는 꺾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여부 확인 안내 대상을 단체 실손의료보험까지 확대하고 대출을 받은 계약자의 관계인에게 보험을 팔아도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보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승환 계약 시 자필 서명, 녹취 등 증빙자료 보관을 의무화해 소비자를 더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반면 보험사 경영과 관련된 규제는 다소 완화했다. 해외 부동산투자 자회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 규모가 크지 않거나 단독 보험 형태로 판매가 어려운 도난, 유리, 동물, 원자력보험 4개 보험 종목을 1개의 인가 단위로 통합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험 광고, 모집 판매 과정에서 안내사항 확대, 꺾기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사 수익원 다변화 및 경영 자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zw @

"이달 기준금리 동결" 우세

국내 채권 전문가의 99% 이상이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채권 전문가 12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현재의 연 2.50%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가 전체의 99.2%였다고 8일 밝혔다.

대다수 채권 전문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면서도 "대내적으로는 금리 변동을 가져올 요인이 적다"고 분석했다. /김민준기자

현대중공업, 장애인 초청 견학 행사 현대중공업은 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장애인 1600여 명을 초청해 회사와 울산박물관 등을 견학시키고 있다. /현대중공업 제공

회수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 연체이자 폐지

금감원, 저축은행 관행 개선

앞으로 저축은행은 채권 회수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에 대해 연체이자를 물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저축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 관련 연체이자 수취 관행 개선안을 오는 상반기 안으로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 규정 및 저축은행별 내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서 채권 회수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은 담보된 예적금의 상계를 통해 연체이자를 폐지한다.

다만 이자 미납분이 과다해 대출금과 예적금을 상계 처리한 뒤에도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체이자를 수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고객의 예적금 납입 금액 내에서 예적금의 만기일까지 관련 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 금리 인 평균 2.5~2.95에 1.5~2%포인트를 가산해 산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예적금 담보대출의 규모는 879억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저축은행 규정에는 고객이 예적금 담보대출금을 대출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해당 예적금과 대출금을 상계 처리하고, 예적금 만기일 이후에 상계 처리하게 될 경우 연체이자를 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예적금 담보대출은 대출 연체로 상계 처리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 회수도 확실함에도 불구, 일반 대출과 동일하게 최대 25% 안팎의 고율의 연체이자를 수취하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대출금과 예적금의 상계 절차가 지연되면서 고객이 연체이자를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됐다.

금감원은 이에 예적금 담보대출 연체이자 관련 개선안을 내놓아 지난 3일 제57차 소비자보호실무 협의회에서 심의를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kim@

벤츠 E클래스 '수입차 1위'

1분기 4494대 판매…단일 모델선 BMW 520d 2238대 '최다'

올해 1분기까지 국내에서 가장 인기를 끈 수입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였다.

최근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낸 자료에 따르면, BMW는 모델별 판매 1위인 520d(2238대)를 앞세워 총 4099대의 5시리즈(M 포함)를 판매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는 E220 CDI(1698대)를 비롯해 총 4494대(AMG 포함)가 팔렸다. 단일 모델에서는 BMW에 1위를 내줬으나 시리즈로 보면 E클래스가 더 많이 판매된 것이다.

아우디는 모델별 판매 톱 10 안에 두 종류의 A6를 올려놨는데, A6의 총 판매량은 2895대다. A6 3.0 TDI와 2.0 TDI가 골고루 인기를 얻고 있으나 모델 종류가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보다 적기 때문에 총 판매량은 뒤지고 있다.

5시리즈 못지않게 다양한 모델이 수입되는 BMW 3시리즈도 인기를 끌었다. 320d(1085대)를 비롯해 총 2290대의 3시리즈가 수입차 고객에게 선택됐다.

폭스바겐 골프는 2.0 TDI가 1489대가 판매됐으나 나머지 모델이 뒤를 받쳐주지 못해 1969대에 그쳤다. 1.4 TSI와 GTD, GTI 등이 판매 라인업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은 곧 신형 GTI와 GTD를 라인업에 추가해 판매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그 외에 눈길을 끄는 차는 인피니티 Q50 2.2d다. 모델별 판매 톱 10에 근접해 있는 이 차는 3월에만 252대가 팔리면서 메르세데스 벤츠 C220 CDI와 아우디 A4 2.0 TDI 등 경쟁 모델을 제쳤다. 현재의 추세라면 동급 최고 인기 모델인 BMW 320d도 추격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보면 수입차 업체들은 일부 특정 모델의 인기를 앞세워서 판매고를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모델을 수입하는 브랜드는 판매하기에 더 유리한 조건이다. 즉 한국 시장에 어울리는 인기 모델과 다양한 라인업이 성공 요건인 셈이다. 올해 1분기 수입차 판매는 지난해보다 27.1%포인트나 증가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다양한 신차 출시가 예정돼 있어 이러한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양지혁기자 ferrari59@metroseoul.co.kr

메르세데스 벤츠 뉴 E클래스

최초 자동차 '페이턴트 모터바겐' DDP에 기증 8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놀이터에서 최덕준(오른쪽)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부사장과 정국현 DDP 국장단장이 세계 최초의 자동차 '페이턴트 모터바겐' 기증식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KT 5년만에 명예퇴직

15년 이상 근속자 대상 내년 임금 피크제 도입

KT가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명예퇴직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명예퇴직은 지난해 KT가 창사 이래 최초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근 회사가 직면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결단으로, 근본적인 구조 개선만이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KT는 이에 따라 노사 합의를 거쳐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함으로써 고비용 저효율의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올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를 전년보다 확대해 조직 전체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KT의 명예퇴직(이하 '명퇴')은 이석채 전 회장 때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번 명퇴의 경우 2009년 대비 상향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일률적인 퇴직이 아닌 직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그룹사인 KT M&S나 ITS에 재취업할 수 있다.

명예퇴직금은 명퇴 직원들의 근속 기간 및 정년 잔여 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로 가산금을 받거나 KT M&S 등 그룹 계열사에서 2년간 근무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퇴직금 외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평균적으로 퇴직 전 급여의 2년치 수준이다.

KT는 10일부터 24일까지 명퇴 희망자 접수를 받고 25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퇴직 발령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한동훈 KT경영지원부문장 전무는 "회사가 경영 전반에 걸쳐 위기 상황에 처함에 따라 직원들이 고용 불안 및 근무 여건 악화를 우려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노사가 오랜 고민 끝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2의 인생 설계 의 기회를 주는 것이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다음달부터 현장 영업, 개통, AS 및 플라자 업무(지사 영업창구 업무)를 KT M&S, KT IS, KTCS 및 ITS 7개 법인 등 계열사에 위탁할 예정이다.

또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라는 국가 정책 수용 및 이에 따른 인건비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2015년 1월 1일자로 도입할 예정이며, 어려운 경영 상황을 고려해 대학 학자금지원제도 폐지 등 일부 복지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SAS 빅데이터 분석SW 공개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SAS코리아는 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SAS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SAS는 데이터 관리부터 의사 결정 관리까지의 빅데이터 분석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신제품과 전략을 공개했다.

동시에 GS홈쇼핑,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삼성서울병원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포럼에 참가하는 등 빅데이터에 대해 큰 관심을 드러냈다.

/박성훈기자 zen@

윈도XP 백신 '보호나라' 무료 배포

윈도XP가 마지막 보안패치 업데이트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9일 오전 2시 마지막 보안패치 업데이트로 윈도XP 지원을 마무리한다고 8일 밝혔다. 2001년 10월 출시돼 가장 인기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OS)로 자리매김했던 윈도XP는 이제 공식 수명을 끝낸 것이다.

다만 MS는 윈도XP의 일부 보안 솔루션 업데이트 지원을 7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되는 지원은 MS 시큐리티 에센셜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센터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포프론트 클라이언트 시큐리티, 포프론트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등 기업용 솔루션 백신 등이다.

한국MS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기준 윈도XP의 사용 비중은 14.97%다. PC 6~7대 중 1대는 윈도XP를 사용한다는 뜻이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윈도 XP 전용 백신 '보호나라'를 8일부터 무료 배포한다.

/이국명기자 kmlee@

'길 막힌' 내비, 첨단 날개

모바일 길찾기 앱에 밀리자 중형세단 겨냥 매립형 제품 스마트 기능 달고 부활 노려

지금자 운전자의 벗 내비게이션이 도태와 진화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4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T맵, 올레내비, 김기사와 같은 모바일 내비 앱은 대다수 스마트폰에 깔린 상황이다. 특히 정체 구간, 가는길 등 거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통신 기기의 장점까지 갖춰 기존 내비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내비 업체들도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업간거래(B2B) 영업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는가 하면 앱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첨단 기능을 장착해 고객 이탈을 막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전통적인 내비는 시장 규모가 매년 줄고 있다. 국내 2위 업체인 파인디지털의 경우 2009년 180만 대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00만 대로 떨어졌다. 4년 만에 절반이나 줄어든 셈이다.

반면 스마트폰 내비 앱 간판 브랜드 T맵은 2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경쟁 내비 앱을 포함하면 최소 3000만 건의 내려받기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내비 업체들은 크게 두 가지 행보를 하고 있다. 먼저 '아이나비'를 서비스하는 팅크웨어처럼 매립형 제품에 주력하는 케이스. 중형 세단 이상 모델에는 매립형 내비가 필수 옵션으로 장착되는 분위기인 만큼 이 시장을 돌고 있다.

아이나비는 예도 LF쏘나타에 장착할 수 있는 제품을 이날 출시했다. 기존의 오디오, 에어컨 등과 연동할 수 있도록 전용 트립 컴퓨터를 만들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파인드라이브를 서비스하는 파인디지털은 내비에 첨단 기능을 집어넣고 있다. 최근 출시한 BF500이 좋은 예다.

이 제품에는 초보 운전자도 완벽하게 주차할 수 있는 '4D 어라운드 뷰' 기능이 있다. 주차 시 차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탑 뷰' 영상을 제공해 운전자가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를 보지 않아도 쉽게 주차할 수 있다.

고가 자동차의 경우 양쪽 사이드미러에 별도의 카메라를 넣어 어라운드 뷰 기능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 제품은 차량이 전·후진을 반복하는 동안 후방에 설치된 단 1개의 카메라가 차량 주변 환경을 영상으로 촬영하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실시간으로 이를 3차원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더불어 건물 층수를 자동으로 인식해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송하기 때문에 주차 위치를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삼성 갤럭시 S5 고객께 드리는 60만원 상당의 특별한 선물

Samsung GALAXY Gifts

삼성 갤럭시 S5 사용자만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Samsung GALAXY Gift

갤S5 구매하면 60만원 상당 콘텐츠 제공 삼성전자는 갤럭시S5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과 콘텐츠 서비스를 묶은 '갤럭시 기프트'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갤럭시 기프트는 글로벌 공통 앱 패키지 11종과 한국 소비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를 합친 것으로 총 60만원 상당에 달한다. /삼성전자 제공

문정역 대명벨리온 지식산업센터 전용률 '짱'

과거 공간만 제공하던 아파트형공장이 지식기반산업의 성장과 함께 정보통신 시스템, 디자인은 편의시설 등을 갖춘 지식산업센터로 변모하는 가운데 국내 유명 리조트 전문기업인 대명그룹이 '문정역 대명벨리온 지식산업센터'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 특별계획구역 4-2블록과 4-3블록에 조성되며 지하 4층~지상 17층, 연면적 9만297㎡ 규모다. 선호도 높은 26개 평형으로 구성됐으며 중앙에 기둥이 노출되지 않게 설계해 가변성을 극대화했다. 또 문정지구에서 가장 높은 52.34%의 전용률을 적용했다.

11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이용객의 대기 시간을 줄였으며, 수직 동선을 확보해 효율성을 높였다. 또 지하 2~3층에 공용회의실과 세미나실, 샤워시설, 탈의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태양광,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함으로써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고, 천장형 냉·난방기를 무상으로 지원해 입주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송파푸르지오시티 2층에 홍보관이 개관 중이며, 오는 15일 기공식이 진행된다. /박선옥기자

구자열(가운데) LS그룹 회장이 6일 브라질 현지시간 산타카타리나주 가루바시에 위치한 LS엠트론 브라질 법인을 방문해 이광원(왼쪽) 기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LS 제공

삼성그룹 수익성도 1위

작년 영업이익률 12.3% 현대차·두산 뒤이어

국내 10대 재벌 그룹 중 수익성 면에서 삼성그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은 영업이익 면에서 나머지 9곳의 재벌 그룹을 합친 것과 비슷한 정도로 압도적인 상황에서 영업이익률 면에서도 최고를 달리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그룹의 영업이익률은 12.3%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의 지난해 매출액은 310조662억원, 영업이익은 38조1906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인 5.1%의 2배를 상회하는 것이며 상장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인 8.8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 비율을 나타내며,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는 잣대로 쓰인다.

삼성그룹의 영업이익률은 2위인 현대자동차그룹의 7.8%를 압도하는 것이며 10대 재벌 그룹으로는 유일하게 두자릿수를 올리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매출액 221조2713억원에 영업이익 17조345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삼성그룹은 3위인 두산그룹의 영업이익률 4.8%보다 2배 이상 격차를 벌리고 있다. 두산그룹은 지난해 매출액 52조807억원에 영업이익 2조5445억원을 기록했다.

4위와 5위는 롯데그룹과 SK그룹이 차지했다. 양사는 영업이익률에서 각각 4.5%, 4.3%를 차지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매출액 54조819억원, 영업이익 2조4800억원을, SK그룹은 매출액 259조5036억원에 영업이익 11조3963억원을 달성했다.

이어 LG그룹이 매출 155조6204억원에 영업이익 6조7630억원으로 영업이익률 4.3%를 기록했다.

한화그룹은 매출액 46조7134억원에 영업이익 9974억원으로 2.1%의 영업이익률, 현대중공업은 매출액 63조2564억원, 영업이익 5488억원으로 영업이익률 0.8%를 나타냈다.

재계 관계자는 "일반 제조업에서 10% 이상대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10대 재벌 그룹에서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위상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백균기자 ktj11@metroseoul.co.kr

구자열 LS회장 글로벌 현장경영

기업 지속성장 해법 찾기 나섰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글로벌 현장 경영에 나선다. 지난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유럽·북미·남미·아시아 등의 산업 현장을 발로 뛰며, 지속 성장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선 것.

구 회장은 유럽의 성장 엔진으로 불리는 독일을 시작으로 브라질, 칠레, 미국을 차례로 방문해 해외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파트너와 협력해 LS그룹의 해외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방문지인 독일에서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박근혜 대통령 독일 순방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독일의 주요 재계 인사들과 만나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선진 제조 현장을 둘러보는 등 새로운 사업 구상의 시간을 가졌다.

구 회장은 해외 주재원과 현지 임직원을 직접 챙기는 일도 잊지 않았다. 우선 2008년 인수한 북미 최대 전선회사 수페리어 에식스(SPSX, Superior Essex Inc.)의 독일 법인 주재원과 만나 노고를 치하하고, 유럽 경기 회복과 독일의 산업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선 분야 종주국인 유럽에서 기술 경쟁력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달 6일에는 브라질로 이동, 지난해 완공된 LS엠트론 트랙터 법인을 방문해 신진 현장을 둘러보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8만㎡ 용지에 사무동, 공장동, 주행시험장 등을 갖춘 브라질 트랙터 생산 법인은 30~100마력 제품을 연간 5000대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트랙터 공장이다.

LS엠트론은 이 공장을 중남미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삼아 향후 브라질에서 2016년까지 매출 1500억원, 시장점유율 15%(100마력 이하 제품 기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구 회장은 9일 칠레로 이동해 글로벌 광산 및 제련 기업인과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CESCO위크(Center for Copper and Mining Studies)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칠레는 세계 최대 동광석 생산국이자 LS Nikko동제련 주요 원료 수입 국가로, 구 회장은 이 행사에서 주요 사업 파트너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칠레 광산 현장을 방문했다.

15일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의 기업, 학교, 연구소 등을 방문해 미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유명한 벤처 캐피탈에 LS를 소개하는 등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구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기존 국내 사업 중심으로는 지속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해외 법인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백균기자

한화 신입임원 아동복지시설 봉사 한화그룹 신임 임원들이 8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한 아동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신임 임원들이 봄을 맞아 화단에 꽃과 작물들을 심고 있다. /한화 제공

효성 세계 최대규모 펌프시험센터 준공

서울시민 하루 사용하는 물 24시간만에 송수 규모

효성그룹의 펌프 및 담수설비 전문 계열사인 효성굿스프링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펌프시험센터를 준공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국내 펌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효성굿스프링스는 8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공장 내 부지에 1000만 서울 시민 전체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을 24시간 만에 보낼 수 있을 정도의 대형 펌프(11만m^3/h)의 성능 시험이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 펌프시험센터를 건립했다.

효성굿스프링스는 발전·석유·담수 플랜트용 펌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용 펌프를 생산하는 국내 1위의 펌프 제조업체로, 매출의 6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지난 1998년 국내 기업 처음으로 원자력 안전등급 펌프에 대한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자격인증서를 취득했고, 2009년 전 세계 10여 개 펌프 업체만이 확보한 미국 기계학회(ASME) 원자력 기기 제조자격 인증 및 원자력 부속품 부품제작 인증을 획득하는 등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8일 열린 효성의 세계 최대 규모의 펌프시험센터 준공식에서 김수현(왼쪽 첫째) 굿스프링스 대표가 펌프시험설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효성 제공

효성펌프시험센터 준공은 최근 전력 및 산업 수요가 급격히 늘며 발전소·원유·가스 플랜트가 대형화·고압화되는 글로벌 펌프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효성굿스프링스는 시험센터 준공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신뢰성을 확보하고,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내 펌프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려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기반을 마련했다.

효성굿스프링스는 이번 준공을 계기로 2020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20년까지 25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협력사의 매출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도 예상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조현준 전략본부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시험센터 준공을 통해 나날이 대형화·고압화되는 펌프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해 효성굿스프링스가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한국의 해외 플랜트 수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백균기자

'중소기업상품전' 참가사 모집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4 한국 PB·OEM & 중소기업상품전'에 참가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대형 유통업계를 비롯한 온·오프라인 유통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 현대일 비즈니스 거래 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규 판로를 열어줄 계획이다.

또한 최근 소비 트렌드를 겨냥한 '싱글 라이프존', '맞이해봄존' 등 특별관이 마련돼 참여 기업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생활·주방, 사무용품, 리빙 홈 데커레이션, 가공식품, 뷰티, 전기전자 등 200개사이며 이달 15일까지 선착순 마감된다. 전시회 참가 신청과 자세한 문의는 대한상의 전시사무국(02-557-6776)이나 홈페이지(www.pbshow.co.kr)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처음 열린 '2013 한국 PB·OEM & 중소기업상품전'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사와 140여 개의 중소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260여 건의 비즈니스 상담과 4만여 명의 소비자가 방문했다.

/김주희기자

사장 없앤 회사 '착한' 반란

즐거운 양유인들과
행복한 양유를 만들자!

양유 직원들이 회사 캐치프레이즈가 선명한 사내 회의실에서 업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㉜ 양유

2년전 디렉터 5명 인수해 공동경영 '5배 시너지' 올 20억 순이익 기대…공채때마다 지원자 폭주

'착한 수사' '착한 드링크' 마케팅으로 브랜드 컨설팅 업계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양유는 자신들에 홍보하는 광고 문구만큼이다 '착한' 기업 문화를 자랑한다. 웬만한 벤처기업은 울고 갈 정도로 높은 업무 강도를 견뎌야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웃음이 사내에 끊이질 않는다. 양유가 이같이 톡톡 튀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사장이 없는 독특한 경영 구조다. 2년 전 외기두합께 회사를 함께 인수한 5명 디렉터가 회사를 공동 경영하고 있다. 혼란이 클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디렉터 5명이 각자의 전공을 살려 경영하는 덕분에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양유에는 사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등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직급 체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디렉터와 리더(8명), 매니저(40여 명)로 구성된 3단계가 끝이다. 직급은 꼬박꼬박 붙여야 하는 기존 회사와는 달리 호칭도 '김디'(김경준 디렉터), '봉매'(성봉규 매니저) 등의 친근한 약자로 통용되고 있다.

◆매년 5월 리프레시 휴가

이 같은 독특한 제도는 이색적인 복지제도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매년 연사일에 5일의 리프레시 휴가가 선물된다. 생일에는 반차를 주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문화데이'로 정해 전 직원이 오후 2시에 업무를 끝내고 영화, 전시회 등을 함께한다. 점심 시간도 낮 12시30분부터 2시까지 정해 휴식을 취하거나 자기 계발·운동 등에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마케팅 사관학교를 지향하는 만큼 교육제도 또한 독특하다. 외부 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디렉터가 리더를, 리더가 매니저를 교육시키는 방식이다. 배우는 사람은 물론 가르치는 사람도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회사 경영 상태는 다른 기업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다. 5명의 디렉터가 인수했던 2012년만 해도 적자에 허덕였으나 올 들어 매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80% 가까이 급증했다. 이미 지난달 말 연간 손익분기점(BEP)을 넘어섰기 때문에 올해 20억원 이상의 순이익도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달 공채에 1800명 지원

이런 성과가 입소문 나면서 양유의 공채는 웬만한 중견기업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달 실시한 공채는 7~8명 채용 예정이었지만 무려 1800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다른 벤처업체들과는 달리 지원자가 너무 많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양유의 고민 해결책 또한 톡톡 튄다. 회사가 구직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가 회사를 선택하는 역발상 방식의 채용제도를 도입해 걱정거리를 한방에 날려버렸다. 우선 1차 서류 접수자들의 휴대전화로 '당신의 열정을 보여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제대로 응답한 구직자들에게 2차 면접 참석 자격을 준다. 참석한 200여 명의 구직자들은 대강당에 함께 모여 디렉터에게 회사에 대한 궁금증을 2시간여에 걸쳐 질문하는 형태로 2차 면접을 진행한다. 이 같은 설명을 들은 후에도 양유와 함께하고 싶은 구직자들은 리더들과 함께 1일 업무 체험 등을 통해 회사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가늠한다. 이런 과정이 끝난 후에도 일에 대한 열정을 보이는 구직자는 양유의 가족이 돼 달라는 프러포즈를 받는다.

김경준 디렉터는 "선택권을 회사가 아닌 구직자에게 준 덕분인지 '즐거운 양유인들과 행복한 양유를 만들자'는 기업 목표가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것 같다"고 활짝 웃었다.

/이국명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더블 스티치에 울고 웃고

서승희 기자의 투잡 체험기

가죽공예 ③

카드케이스에 이은 두 번째 도전 과제는 명함지갑이다.

외부 업체를 만날 기회가 잦은 직업이라 오래전부터 명함지갑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막상 사고 싶은 제품을 찾지 못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기자에게 이번 수업 시간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일주일만에 찾은 아고스티노 가죽학교는 기자를 또다시 초심자로 만들었다. 지난 시간 배웠던 칼 잡는 법도 새롭고, 칼질의 결과물도 영 신통찮다. 가죽과 가죽이 만나는 부분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바느질 작업인 더블 스티치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바느질의 처음과 끝은 역방향을, 중간중간은 정방향으로 해야 해요. 두 땀을 더 해야죠. 오른쪽으로 다시 감아주세요." 강사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중학생 때 배운 바느질 실습이 전부인 기자에게 강사의 말은 들어도 들어도 낯설기만 하다. 특히 언어로 표현된 것을 이해한 후 몸으로 시현하는 작업은 '정말' 쉽지 않았다. 더 나아가 강사는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며 "이 명함케이스는 어디서 바느질을 시작했을까요? 왜죠?"라며 문답식의 수업을 진행해 패닉 상태에 도달하게 했다. 오후 5시에 시작한 작업은 대략 4시간 반의 우여곡절 끝에 완성 진척도 90%에 이르렀다. 수업을 마치고 '더블 스티치가 쉽지 않다'는 푸념에 강사는 "더블 스티치는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고, (가죽공예에서) 많이 쓰여요"라며 "앞으로 패잔 시작 등 이보다 어려운 것들이 산적해 있어요"라며 거침 없이 얘기해줬다.

첫 출근하는 친구, 승진한 지인에게 손수 한 땀, 한 땀 정성들여 만든 명함지갑을 선물하는 기분 좋은 상상으로 시작됐던 이번 시간은 약간의 좌절과 약간의 의기소침으로 마무리됐다.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여본다. /[illegible]

아고스티노 가죽학교에서 취재한 가죽에 굴크헤 실로 완성한 명함케이스.

홍은동 호박골 벽화 물결 삼성에버랜드 패션 부문의 2014년 상반기 신입사원들이 지난 7일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호박골을 찾아 마을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 제공

연봉무관? 거짓말인 거 다 압니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연봉은 중요치 않다'는 구직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455명을 대상으로 '채용 면접에서 구직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라고 물은 결과 79.6%가 '있다'라고 답했다.

거짓말이라고 느낀 구직자의 말 1위는 '연봉은 중요하지 않다'(57.2%, 복수 응답)가 차지했다. '시키는 일은 무조건 다 할 수 있다'(51.4%), '야근·출장·주말 근무도 즐겁게 할 수 있다'(51.1%), '처음이자 마지막 직장이라고 생각한다'(34.3%), '업무 관련 경험, 경력이 많다'(34%), '개인보다 회사가 중요하다'(30.7%),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21%), '다른 회사는 지원한 적이 없다'(1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를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기준은 '상투적인 표현'(46.7%, 복수 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답변의 일관성 여부'(31.2%), '말투나 목소리, 눈빛'(30.9%), '추가 질문 답변 수준'(29%), '표정이나 태도의 불안감'(27.5%) 등을 거론한 인사담당자도 많았다.

거짓말에 대한 인사담당자의 평가도 냉정했다. 무려 인사담당자의 [illegible]%가 거짓말에 불이익을 준다고 답했다. /이국명기자

이런 인재를 원한다

"양유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후배·친인척들을 추천하면서 지난해 초 이후 3개월 간격으로 진행했던 공채에 1000명 이상씩의 구직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김경준(사진) 디렉터는 양유의 독특한 기업 문화에 공감하는 젊은 인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문화가 매우 독특하다

▶▶양유는 회사 성과는 물론 개인의 성장도 매우 중요시한다. 연초 개개인의 목표관리(MBO)를 세울 때도 업무 목표는 물론 개인적인 목표까지 작성해 관리한다. 예를 들어 식스팩 만들기, 매주 부모님과 식사하기 등도 MBO에 포함해 연말에 평가한다.

스케치북 들고 '구직 액추얼리' 감동

▶브랜드나 마케팅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배우고 성장하겠다는 열정만 있으면 된다. 매주 진행되는 마케팅 교육을 통해 충분히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기억에 남는 합격자가 있다면

▶▶'양유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세요'라는 미션에 문자메시지나 e메일로 답하는 다른 구직자와는 달리 직접 회사로 찾아와 '함께하고 싶다'는 고백을 쓴 스케치북으로 프러포즈를 하고 간 구직자가 있었다. 뛰어난 열정은 물론 편안한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국명기자

유통가 '고객 참여형' 기부 붐

오디오북 제작 위해 '목소리' 받고 중고품 수거해 판매금 사회환원도

유통업계의 고객 참여형 기부 활동이 늘고 있다. 특히 고객의 특화된 재능을 기부받는 '재능기부'가 눈에 띈다.

인터파크도서는 느티나무도서관재단과 함께 오디오북 제작 캠페인 '더 리더-당신의 목소리를 기부하세요'를 오는 22일까지 벌인다. 이 캠페인은 일반인이 성우가 돼 목소리를 기부, 낭독의 즐거움과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제작된 오디오북은 시각장애인과 노약자, 결혼이주민, 공도소 도서관 등에 제공하게 된다.

G마켓은 기아대책, 제일기획과 공동으로 재능 나눔 캠페인 '1.25 미라클 마켓'을 실시한다. 여행 중에 찍은 사진, 직접 그린 일러스트를 비롯해 음악·소설 등 자신의 재능이 담긴 디지털 콘텐츠를 1.25달러(약 1250원)에 사고팔 수 있는 재능기부 오픈마켓이다. 특히 이 캠페인에서 지드래곤(GD)은 응원 메시지와 바탕화면을, 이연희는 모닝콜 음성파일을 기부했다. 캐그우먼 박미선은 지혜의 말씀 낭독파일을 기부 콘텐츠로 내놓았다.

옥션은 중고품 기부 상설 코너 '나눔박스'를 운영 중이다. 회원들이 기증한 물품을 수거해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하고 판매를 통한 수익금 전액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옥션은 쇼핑과 기부를 연동한 '나눔쇼핑'을 운영해 '나눔상품'으로 표기된 제품이 판매되면 판매자가 판매액 중 일정 비율을 기부금으로 적립해준다.

11번가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희망쇼핑'을 운영한다. 희망쇼핑 상품 등록 또는 희망쇼핑 상품 구매만으로 일정 금액이 사회공헌 후원금으로 적립된다. 또 오는 13일에는 북한산국립공원의 유실도 복원을 위해 등산객에게 식생도를 증정하는 '11번가 희망복원 캠페인'도 진행된다.

AK몰은 방글라데시 희망학교 'AK방글스쿨' 건축 및 후원을 위해 2012년부터 고객 참여 기부 나눔 이벤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6000여 명의 고객이 적립금 기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최근에는 지난 1월 개교한 AK방글스쿨 수업 운영을 돕기 위해 3월 한 달간 '교구기증 이벤트'를 실시했다.

/정영일기자 ⓒmetroseoul.co.kr

모기약·생수 '더운 봄' 특수

여름 못잖게 매출 급증

때 이른 더위에 대형마트에서 생수 판매가 급증하고, 여름철 불청객인 모기마저 극성을 부려 살충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해충 퇴치 관련 상품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1.4%나 급신장했다.

회사 측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 모기뿐만 아니라 날벌레들의 출몰도 앞당겨졌으며, 평년보다 야외 활동도 늘어나면서 해충 퇴치 관련 상품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일본뇌염을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의 국내 최초 발견 시기는 2011년 4월 28일, 2012년 4월 25일, 2013년 4월 18일로 꾸준히 앞당겨지고 있다.

야외 활동도 늘면서 등산 및 캠핑용품은 64.4%, 반팔셔츠 71.2%, 여행가방 18.8%, 선글라스 등이 을 집계 8.1%, 아이스박스 12.4%, 물병·도시락 15.8%, 생수는 6.9%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생수 판매도 늘고 있다. 농심은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1분기 백두산 백산수 판매 개수가 전년보다 55%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정에 두고 마시는 2ℓ 포장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4.7% 신장한 것에 비해 가지고 휴대하며 마실 수 있는 500㎖의 생수 105.3%가 더 판매됐다.

이마트의 최근 집계 자료에서도 같은 기간 생수 판매액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3% 증가했다. 500㎖ 생수의 1분기 매출 증가율이 90.7%로 전체 증가율 45.3%의 두 배를 넘었다. 2012년, 2013년 1분기 모두 음료 순위에서 4위에 올랐던 생수가 올해는 탄산음료(22.0%)와 두유(21.1%)를 제치고 1위로 올랐다. 지난해 1분기에는 두유가 1위였고 탄산음료와 과즙음료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정영일기자

'동물원 품은' 아쿠아리움 국내 첫선

아쿠아플라넷 일산 화제

수족관과 동물원이 공존하는 국내 최초 컨버전스 아쿠아리움이 문을 연다.

한화호텔&리조트(대표 홍원기)는 10일 오후 2시 개장식을 열고 '아쿠아플라넷 일산'을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아쿠아플라넷 일산은 바다코끼리 등의 수상 생물부터 재규어, 알락꼬리원숭이 등의 육상 생물까지 다양한 동물을 관람할 수 있는 신개념의 아쿠아리움으로 해양 생물 전시공간인 '더 아쿠아'와 육상 생물 전시관인 '더 정글'로 구성된다.

▲심해어 수조 ▲젤리피쉬존 ▲딥 블루오션 ▲터치풀 ▲오션아레나 등으로 이뤄진 더 아쿠아는 빛을 투과한 신비로운 풍경으로 꾸며진 것이 특징이며 총 220여 종 2만5000마리의 다양한 해양 생물을 감상할 수 있다.

또 더 정글에서는 ▲담수터널 ▲맹수존 ▲열무세존 ▲양서류존 ▲카피바라존 ▲원숭이존 등을 통해 진화하는 생물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한화호텔&리조트는 관객과 아쿠아리스트가 상호 커뮤니케이션으로 교감할 수 있는 양방향 도슨트 프로그램과 싱크로 퍼포먼스, 그리고 생태 설명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교육과 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킨텍스와 주엽역, 일산 호수공원까지 도보 이동이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hsoul38@

하회마을로 영월로 떠나는 '풍류기차'

코레일관광 2색 상품 출시

코레일관광개발이 전통문화 속 풍류를 즐기는 기차 여행을 선보인다.

먼저 12일에 출발하는 '하회마을 벚꽃 광도잠터 기차여행'은 코레일과 중소기업청이 공동 주관해 여행자비 일부와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을 지원하는 실속 가득한 여행 상품이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안동역에 도착한 후 시골 정취가 넘치는 안동구시장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교인 월영교, 그리고 하회마을에서 벚꽃의 향연을 즐기게 된다.

영월로 떠나는 '영월 외씨버선길 기차여행'은 27일 출발하는 당일코스 여행으로 영월 다하누촌에서 점심을 먹은 뒤 영월의 외씨버선길 12번째 코스에 해당하는 김삿갓문학길 트레킹을 체험할 수 있다.

이건태 코레일관광개발 대표는 "안동과 영월은 옛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가장 한국적인 관광지다. 계절감이 살아있는 코스를 통해 여행의 멋과 맛이 배가되는 기차 여행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직딩들 기다린 '호텔 야외 비어가든' 손짓

르네상스 서울 14일 재개장
봄밤 실속모임 즐기기 제격

예년보다 봄이 훨씬 찾아오면서 호텔업계의 '야외 비어가든' 오픈 또한 앞당겨지고 있다. 르네상스 서울 호텔도 이에 맞춰 '잇 플레이스(It place)'로 유명한 야외 비어가든을 오는 14일부터 재개장한다.

호텔은 모둠 소시지, 소고기 꼬치구이, 돼지갈비 바비큐 등 작년보다 메뉴를 다양하게 구성해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바비큐&음료 패키지에 1인당 1만5000원을 추가하면 무제한으로 레드 또는 화이트 와인을 즐길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금 더 스마트하게 비어가든을 즐기고 싶다면 30일까지 매주 월·화요일에 진행되는 이벤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먼저 월요일에 8명 이상이 비어가든을 방문하면 2명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또 화요일에 사원증이나 명함을 제시하는 강남지역 회사원은 본인에 한해 10% 할인된 가격에 비어가든을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14분에는 맴버 추첨 이벤트가 진행돼 르네상스 호텔 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문의 02)2222-8630

/황재용기자

차가운 맛 라거, 향 느끼는 에일

맥주 동호회가 알려주는 '제대로 한잔하기' 요령

이른 더위와 함께 다양한 수입 맥주와 하우스 맥주가 등장하고 기존 주류 업계에서도 신제품을 출시하는 본격적인 맥주의 계절이 돌아왔다.

맥주 동호회인 '맥주야 놀자'의 권경민 운영자는 "과거 '부어라 마셔라' 하는 음주 문화에서 맥주 동호회를 주축으로 맥주를 즐기며 음미하는 하나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귀띔했다.

과연 맥주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팁들이 필요할까? 권경민 운영자의 도움으로 맥주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맥주를 펍에서 즐길 경우에는 그 펍에서 생맥주 관리를 철저히 하고 펍의 노즐 청소를 잘하고 매장이 바쁜 곳으로 가야 맥주의 회전율이 높고 순환 기간이 짧아서 신선한 맥주를 즐길 수 있다.

맥주잔을 얼려주는 곳은 청량감은 있지만 라거 계열이 아닌 에일 계열의 맥주는 온도가 너무 낮으면 오히려 맛과 향을 느끼기 어려워지므로 맥주를 마실 때 참고하면 좋다.

가정에서 맥주를 즐길 경우 적정 온도를 지켜주는 것이 좋다.

국내 시판되는 맥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라거 맥주의 경우 저온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4~8도 정도, 고온 상면 발효 과정을 거치는 에일 맥주의 경우는 7~13도 정도로 라거보다는 다소 높은 온도로 마셔야 에일 맥주의 깊은 맛과 향을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다.

가급적 전용 잔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일부 마니아들이 아니면 종류별 전용잔을 구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땐 라거 맥주는 두꺼운 머그잔이나 수석잔 등 열 전도율이 낮아 맥주가 쉽게 미지근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잔이 좋다. 에일 맥주는 잔에 목이 있는 고블릿 형태의 잔이나 입구가 넓은 잔으로 맥주의 향을 느끼기에 용이한 잔이 좋다.

맥주를 따를 때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잔을 기울여 따르는 것은 오히려 좋지 못한 방법이다. 풍부한 거품은 탄산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고 맥주의 신선함을 마시는 동안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안주도 가급적이면 자극적이지 않은 안주들 선택해야 맥주 본연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다.

이제는 마트에서 맥주를 고를 때도 맥주의 특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맥주를 고르는 등 맥주 문화에 크고 작은 바람이 불고 있다.

/정해림기자 xmas@metroseoul.co.kr

금융권 지원땐 슈트에 7cm 힐

여성 구직자 면접룩 제안

공채 시즌이 시작되며 면접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은 면접 복장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들의 경우 그 종류가 다양해 고민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금융권 기업 등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회사에 지원했다면 단정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내는 슈트로 스타일링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심플한 디자인의 블랙 정장 재킷과 에이치 라인 스커트는 깔끔하면서도 지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할 때 제격이다. 여기에 블루 색상의 셔츠를 이너웨어로 입으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여성 면접 패션의 정석을 연출할 수 있다.

구두는 슈트와 동일한 컬러로 매치하고 굽은 5~7cm가 적당하며 디테일이 없는 깔끔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무난하다. 머리 길이가 길다면 헤어끈을 활용해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단정한 분위기를 더욱 살릴 수 있다.

개성을 중시하는 업계에 지원했다면 정형화된 정장보다 포인트를 연출하는 것이 좋다. 칼라가 없는 재킷으로 시크한 멋을 낼 수도 있고 검정색보다는 밝은 색상의 재킷으로 감각적인 멋을 연출할 수 있다. 특히 살구색 재킷에 네이비 컬러 원피스를 함께 매치하면 색상에 대비를 이뤄 진취적이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와 함께 골드 컬러 시계 등 액세서리를 적절히 가미하고 넉넉한 크기의 가방을 들면 보다 전문성 있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한편 면접용 정장을 구입할 땐 입사 후에도 입을 수 있는 옷인지 따져봐야 하고 면접을 보러 갈 땐 무엇보다 옷의 청결과 다림질 상태를 다시 한 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학철기자 kmc@

벚꽃축제·놀이동산·야구장 뭐 입고 갈까

나들이 장소별 패션 팁

따스한 햇살과 함께 놀거리가 많은 봄이 왔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봄나들이 대표 장소 세 곳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잡을 패션 스타일 팁 몇 가지를 소개한다.

벚꽃축제 등을 마음 편히 즐기려면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대응할 트렌치코트를 챙기는 것이 좋다.

여성은 트렌치코트에 스트라이프 티셔츠나 플라워 프린트 원피스를 매치하고 밝은 컬러의 숄더백이나 머플러로 포인트를 주면 프렌치시크룩을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남성은 셔츠에 면 소재의 블레이저를 입으면 활동하기도 편하고 댄디한 스타일의 데이트룩을 완성할 수 있다.

놀이동산과 같이 활동 반경이 넓은 야외에서는 몸에 꽉 끼는 옷보다는 활동하기 편한 캐주얼 의상이 적당하다. 활동성이 우수한 데님팬츠나 쇼트팬츠에 티셔츠를 매치하고 컬러감 있는 야상 재킷을 걸쳐 입으면 큰 일교차에 대응할 수 있다.

크록스 제공

유인경 메트로시티 마케팅팀 차장은 스타일에 포인트를 주고 소지품을 분실하지 않으려면 크로스백이나 백팩을 착용하는 것도 좋다고 귀띔한다.

야구장은 가족 단위 나들이는 물론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인기 있는 장소다.

야구 경기는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야간 경기 시 급변하는 일교차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스타디움 점퍼는 멋스러움은 물론 방한에도 효과가 있어 실용적인 야구장 아이템이다. 스타디움 점퍼에는 쇼트팬츠나 캐주얼한 느낌의 신을 매치하는 것이 좋고 컬러감 있는 야구 모자를 포인트로 활용하면 좋다.

/김학철기자

'건강한 호흡' 도우미 모여!

미세먼지·황사철 맞아 웰브레싱 제품들 인기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와 황사에는 독성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기관지를 비롯한 각종 신체기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영유아들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라 깨끗하고 건강한 호흡을 위한 '웰브레싱(Well-breathing)'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황사에 오염된 실내공기를 효과적으로 걸러내고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을 줄여 아토피 완화에 효과적인 관련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의 실내용 산림욕기 '잣나무가 있는 숲'(위 사진)은 잣나무 12그루에서 나오는 양과 동일한 피톤치드를 분출하며 공기 정화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는 공기뿐만 아니라 거실 바닥, 천 제품 등 집 안 곳곳에 숨어 우리를 위협한다. 한경희생활과학은 각종 세균과 진드기 서식 우려가 높은 침구 속 먼지를 제거하는 침구킬러 진드가싹(아래)을 선보였다. 바닥의 세라믹 열판이 패브릭 제품의 살균 및 살충 최적 온도인 120도의 열을 가해 수분 결정체인 집먼지진드기 등을 제거한다.

또 최근 미세먼지가 영유아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고민은 깊어진다. 청소용품 렌털서비스업체 중무원더스킨은 미세먼지 제거 청소용품 '홈씨'와 기능성 현관매트를 렌털하고 있다. 현재는 어린이집을 타깃으로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 1000여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혜진기자 hjang@

metrobook

새로 나온 책

인문
대학과 지성
김서복 외/한성대학교 출판부

한성대 사회학과 교수인 저자와 여 대학교수 및 관련 분야 교수 10명이 오늘날 대학생들에게 진정한 지성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다.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대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또 이와 동시에 평등과 공동체 등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치의 얘기들을 담고 있다.

관우
남덕현/현지의마을

저자는 삼국지 관우의 역사적·문화적·예술적 형상화 과정에 대해 비평과 현지 답사를 통한 사유의 관찰의 기록을 책에 담았다. 무엇보다 관우가 역사적 맥락에서 영웅이 되는 과정과 소설을 통해 상징화되는 과정, 중국인들에게 신으로 존재하게 되는 과정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흥미롭게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관우 비평서라 불릴 만하다.

에세이
나이 듦에 대한 변명
김희재/리더스북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자연스럽게 늙어간다. 참을 수 없어 지솟는 울화, 주체 않게 깊어진 눈물, 저리고 둔해지는 감각 등 젊음과는 다른 증상이 바로 그것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 이런 나이 듦을 공감과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육아
세상의 엄마들이 가르쳐준 것들
크리스틴 그로스-노/부키

금지옥엽 내 자식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경험하면서 육아 선진국의 엄마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모았다. 세상의 엄마들이 알려주는 놀랍고도 감동적인 육아 이야기가 책 속에 담겨 있다.

건강
체형별 효소 다이어트
마쓰자키 히사/미디어윌

체형과 계절에 따라 살찌는 이유, 살 빼는 방법이 다르지만 저자는 우리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한 효소가 부족해 살이 찐다고 말한다. 이에 효소를 정복하면 누구나 살을 뺄 수 있으며 효소 정복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부족한 효소가 무엇인지 파악해 음식을 통해 그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

취미/스포츠
생존의 달인 아웃도어 핸드북
강철도/세창

국내 최고의 아웃도어 서바이벌 전문가로 알려진 저자는 '한국형 아웃도어 핸드북'을 [illegible] 누구도 생존까지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기술들이 알기 쉽게 설명된 책이다. 매듭법, 셸터 및 불 만들기 등 이 책에 실린 모든 기술들은 사진과 함께 약 100개의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으로 쉽게 배울 수 있다.

건축
나, 건축가 구마 겐고
구마 겐고/안그라픽스

건축가 구마 겐고가 세계적인 건축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자서전이다. 저자는 영원히 단단한 콘크리트 건축과는 거리가 먼 작음, 약함, 자연스러움, 이음, 죽음의 건축 철학과 자신의 삶에 대해 진솔하고 담백하게 전달하고 있다. 건축 생태계 내부인인 저자의 말을 통해 건축은 엄스러운 영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자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지속적으로 변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직장인 독서공감' 블로그

교보문고는 8일 독서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함께 직장인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 관련 생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직장인 독서공감' 리딩트리 공식 블로그가 오픈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식 블로그에선 교보문고 리딩트리가 각 기업 고객에게 진행하고 있는 독서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비롯해 직장인 필독서, 리딩트리 주간 베스트셀러, 북카페 탐방기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매주 포스팅 할 계획이다.

또 리딩트리 서비스를 보다 다양한 기업의 직장인들이 체험해볼 수 있도록 캠페인 프로모션도 추후 진행할 계획이다. /정민지기자 [illegible]

우크라 현대사에 메스

간호사 니나 보르 주인공의 미스터리 소설 시리즈 3탄

적십자 소속 간호사 '니나 보르'를 주인공으로 하는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 출간됐다. 니나 보르는 불법 체류자나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간호사로 경시 쇄센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

주인공의 직업이 간호사다 보니 경찰이나 탐정이 등장하는 다른 추리소설들과 달리 주인공의 화려한 활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신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함,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파헤치는 힘이 있어 사회파 미스터리를 사랑하는 독자라면 이번 작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이팅게일의 죽음
레네 코베르볼, 아그네테 프리스/문학수첩

이번 작품 속 니나는 적십자 난민 캠프에서 '나타샤'의 딸 '리나'라고 불리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 나타샤는 전 약혼자 미샤엘을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 구류돼 있다가 경찰청으로 이송되던 중 핸머디의 우크라이나어를 듣고 딸을 구하기 위해 탈주한다. 그런 그녀를 덴마크 경찰과 보안정보부, 우크라이나 측 수 경찰,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들이 쫓기 시작한다. 그녀가 도망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녀를 쫓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에 대한 실마리로 올가와 옥시나 의 이야기가 나타샤의 이야기와 교차해 진행된다. 두 소녀가 살고 있는 1934년 이오시프 스탈린 지배의 우크라이나는 기근 속에서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고 러시아와 반목이 깊어지고 있다. 자매는 혹독한 기근과 통제 속의 우크라이나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족과 이웃을 피로 물들이는 선택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현재까지 이어져 나타샤와 딸 리나를 두려움에 떨게 한다.

앞서 '슈트케이스 속의 소년'과 '보이지 않는 이웃의 살인자'에서도 독특하고 시의성 강한 소재로 사랑받은 두 저자들은 이번엔 우크라이나의 어두운 현대사가 어떻게 사회 체제를 왜곡하고 개인의 삶을 균자로 몰아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작품 속에 등장하는 미흡한 과거사 청산, 채벌의 독점과 횡포 등은 한국 사회와도 크게 다르지 않아 저자들이 파헤치는 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우리의 상황에 빗대어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장혜선기자 hjang1048@metroseoul.co.kr

섬이 [illegible] 조금 [illegible] 무엇은 흔하기 [illegible] 늦게 오는 [illegible] 듯 세월을 따라 바쁘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도 여지 섬의 부엌에는 거친 바람과 파도에 제 살을 에이면서도 꿈쩍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어머니가 있다. 그렇게 어머니는 섬과 같이 우리 삶 속에 생명이 살아있다. – 풍경 섬 부엌 단디 탐사기 (김살청/남해의봄날) 중~

/윤재웅기자 [illegible]

프로라면…진상 상사 관심 끄고 상황 해결

화제의 책

감정싸움 필요 없는 소통의 기술
한유경/위즈덤하우스

많은 사람들이 조직 생활을 하며 감정 소모로 인한 심리적 피로감을 느낀다. 피로감이 지속될 경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

저자는 이처럼 원치 않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감정적 대응이나 가치 판단을 하기보다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논리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이를 설득하는 방식에서 프로와 아마추어가 갈리는 것이다.

이 책에는 자기 실리만 챙기는 사람, 급할 때만 자연을 찾는 사람, 성공을 위해서라면 주변 사람을 밟고 가는 사람, 실수를 하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사람 등 다양한 인간상이 등장한다. 저자는 이런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무엇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었고 부정적으로 만들었는지 경험을 되짚어 소개한다.

한국인 최초로 할리우드에 미술총감독으로 입성한 저자는 15년이란 세월 동안 현장에서 '프로'로 일했다.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조직 내 감정 싸움에 자주 휘말리게 되면 결국 그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책은 각양각색의 특종들이 모인다는 할리우드에서 저자가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논리적 설득'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담아냈다.

/김학철기자 [illegible]

metro entertainment E

“실제론 애교 많은 여자 아니예요”

영화·예능 종횡무진하는 소녀시대 써니

소녀시대가 잇따른 공개 연애로 연예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지만 멤버 써니(26)는 스캔들 없이 남녀노소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종횡무진하고 있다. tvN '꽃보다 할배'의 지난 시즌에 동행해 이서진과 '꽃할배'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써니는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영화 '리오 2'(다음달 1일 개봉)의 더빙에 참여해 어린이 관객들의 사로잡을 계획이다. 8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만난 써니는 팬들은 물론 꽃할배마저 무장 해제시킨 특유의 깜찍한 애교를 앞세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좋다. 열심히 해서 소녀시대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발랄하게 말했다.

-'리오 2'에서 엄마 앵무새 쥬엘 역으로 더빙에 참여한 소감은.

'리오' 1편을 재미있게 봤기에 2편에 참여해 영광이다. 어릴 적부터 성우의 더빙을 듣고 자랐고, 요새도 애니메이션을 즐겨 본다. 이번에 더빙을 해보고 성우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다. 한국 정서에 맞게끔 어색하지 않도록 표현하는 게 어렵더라. 극중 짧지만 노래를 부르는 장면도 있다.

-제국의 아이들의 임시완과 부부로 목소리 연기를 펼쳤는데 어색하지 않았다.

포스터를 촬영하는 날 처음 봤는데 민망하고 어색했다. 시완 오빠가 사교성 있는 성격이고 나를 편하게 대해줘 다행이었다. 예전에 제국의 아이들의 동준 오빠와 뮤지컬 '캐치 미 이프 유 캔'에 함께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시완 오빠와도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꽃할배' 후 이서진과는 지금도 자주 연락하나.

이순재 선생님께 얼마 전에 전화가 왔다. 소녀시대 멤버들에게 밥 한번 사주겠다고 하셨다. 지금은 다도 선생님도 바빠서 밥 스케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서진씨와는 자주 연락하고 싶은데 방송에서 이상한 분위기로 포장되고 내가 하는 말들이 자주 기사화되니까 죄송하다. 드라마 '참 좋은 시절'은 잘 보고 있다.

-친분을 잘 유지하는 성격 같다.

스스로는 인맥이 좁다고 느낀다. 사교적으로 어떤 자리를 만들고 참석하는 건 잘 못한다. 그래서 일을 통해 만난 사람과의 인연만큼은 잘 놓지 않으려고 한다. '결전'도 KBS2 '청춘불패'에 같이 출연했던 신봉선, 다르샤 언니와 티아라의 효민, 씨스타의 보라다.

-애교가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가.

사실 평소에는 소녀시대 멤버 중에서 가장 애교 없는 성격이다. 다만 효과음과 의성어 의태어가 발달해 애교 있게 보이는 것 같다. 리액션 효과음은 티파니가 가장 잘 낸다. '박수 먹을 때'라든가 '소 곳'을 외치면 마치 미국 드라마 보는 것 같다. 덕분에 나도 '음~' 하며 효과음을 내는 습관이 생겼고 더빙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

-더빙 경험을 살려 연기자로 나설 계획은.

새 뮤지컬을 준비 중이다. 앞서 '캐치 미 이프 유 캔'으로 뮤지컬에 도전했을 때 즐거운 경험과 추억이 됐다. 아무리 멋지고 좋은 거라도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잘하는 것은 연습을 거쳐서 무대 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뮤지컬로 연기에 도전하고 싶다.

-소녀시대의 다른 멤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약 중인데 질투는 나지 않나.

어릴 땐 내 욕심을 더 챙긴 때가 있었다. 연기도 노래도 많이 하고 싶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잘 알고 마음으로 한 팀이 된 후부터는 생각이 달라졌다. 누군가가 어떤 역할을 해서 소녀시대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멤버들이 모두 합쳐서 더 열심히 하라고 밀어준다.

-멤버들이 성장했고 어느덧 연예도 한다. 소녀시대란 이름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데뷔 때부터 계속 받은 질문이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소녀가 있는 한 소녀시대는 존재한다고 대답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계속 소녀시대이고 싶고, 우리를 보고 꿈을 키우고 에너지를 얻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속에 소녀를 간직하고 있도록 하고 싶다.

-MBC '무한도전' 특집 '쓸친소'에 함께 출연한 친구는 짝이 있나.

잘돼서 나갔어나. 그때 쓸쓸한 눈빛을 알 수 있었다. 친구씨가 '쓸친소'에서 자금의 여자친구에게 고백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남 일 같지 않다. 난 다음에는 '멋친소'를 하고 싶다.

/박진영기자 tsk8427@metroseoul.co.kr

사진/유이봉 기자

> 애니 '리오2'서 엄마 새 더빙
> 임시완과 부부 연기 민망해
> 영원히 '소시'로 남고파 ”

데뷔 2년 엑소 첫 단독 콘서트 '으르렁'

내달 24·25일 올림픽공원
"환상의 무대로 관객 매료"
공연 앞서 컴백쇼도 마련

대세돌 엑소(사진)가 데뷔 2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8일 "엑소가 다음달 24일과 25일 양일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첫 단독 콘서트 '엑소 프롬 엑소플래닛 #1 – 더 로스트 플래닛'을 연다"며 "엑소가 데뷔 후 처음 선보이는 콘서트인 만큼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을 시작으로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공연에서 엑소는 '늑대와 미녀' '으르렁' '12월의 기적' 등 지금까지 발표한 노래와 새롭게 선보일 앨범의 수록곡 등 지난 2년간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소속사는 "엑소의 다채로운 음악과 무대, 매력이 집약된 환상적인 공연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콘서트 예매는 16일 오후 8시부터 인터넷 사이트인 G마켓을 통해 가능하다. 엑소는 콘서트에 앞서 15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가요계 복귀를 알리는 '엑소 컴백쇼'를 연다. 컴백쇼 관람은 9일까지 심심뮤직에서 응모할 수 있다.

한편 엑소는 지난해 에프엑스와 합동 콘서트에서 개성 넘치는 음악과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여 주목받은 바 있다.

/서샘원기자 ssw@metroseoul.co.kr

빅뱅·싸이도 YG 주주

싸이(작은 사진)와 빅뱅(큰 사진) 등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소속 아티스트들이 YG의 주주가 된다.

8일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와 양민석 대표이사는 대주주로서 각각 행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중 일부를 소속 가수와 배우들에게 양도했다. YG의 최대주주인 양현석 대표와 2대 주주인 양민석 대표는 신주인수권 중 8만1400주를 싸이·빅뱅 등 소속 가수와 연기자 18명에게 배분했다.

8일 오전 11시30분 현재 YG의 주가는 6만1900원으로 양도한 주식의 가격은 약 50억원에 해당한다. 대주주와 소속사 대표가 아티스트들에게 자신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것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최초의 사례라 눈길을 모은다.

두 사람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소속 아티스트 18명은 YG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돼 보다 적극적으로 회사의 효율적 경영과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YG는 지난 2월 14일 이사회를 열고 51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실시한다. 또 유상증자 납입일 이후인 다음달 7일에는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를 포함한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1주당 0.30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도 시행한다. /유순호기자 sunny@

록밴드 넬 '그린플러그드' 무대 선다

최종 라인업 11일 공개

록밴드 넬(사진)이 음악 페스티벌 '그린플러그드 서울 2014' 무대에 선다.

그린플러그드 측은 "5월 4일 공연 첫 무대는 대한민국 대표 록밴드 넬이 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하며 봄을 대표하는 음악 페스티벌로 자리 잡은 '그린플러그드 서울 2014'는 오는 5월 3~4일 서울 난지 한강공원에서 열린다.

현재 확정된 라인업에 따르면 넬을 포함한 장기하와 얼굴들, 전인권 밴드, 몽니, 장미여관 등이 헤드라이너로 나서며 갤럭시 익스프레스, 딕펑스, 이스턴 사이드킥 등 개성 있는 록밴드들을 비롯해 힙합, R&B 장르를 대표하는 래퍼 산이, 범키, 문명진 등이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최종 라인업은 오는 11일 공개된다.

한편 넬은 그동안 '그린플러그드 서울'의 무대에서 한 번도 만나볼 수 없었던 아티스트로 많은 음악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넬은 지난 2월 약 2년간의 공백을 깨고 여섯 번째 정규앨범 '뉴턴스 애플'을 발표했다. 타이틀곡 '지구가 태양을 네 번'은 각종 음원 사이트 1위를 휩쓸며 마니아층과 대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지민기자 jmkim@

남규리 DJ 변신… '송크란 페스티벌' 참가

가수 남규리(사진)가 DJ로 변신한다.

남규리의 소속사는 "남규리가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14 송크란 페스티벌'에 참석해 디제잉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송크란 페스티벌'은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더위를 잊는 '물의 축제'다.

남규리는 축제의 일환인 'H2O 뮤직 페스트'에 아시아 대표로 정식 초청을 받아 디제잉을 한다. 남규리는 최근 한 잡지 인터뷰를 통해 "음악을 워낙 좋아해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배우고 있다"며 "디제잉에 빠져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14 송크란 페스티벌 H2O 뮤직 페스트'는 오는 12일 싱가포르 웨이브하우스 센토사에서 개최된다. /장서윤기자

4월 가장 기대되는 최고의 웰메이드 장르물 드라마!
살 아 있 었 네…
tvN 금토드라마
미스터리 감성 추적극
갑동이
4월 11일 금요일 / 저녁 8시 40분 tvN 첫방송
갑동이 웹툰 PC버전 를 검색해보세요

중국은 지금 '도민준 앓이'

'별그대' 현지 동영상사이트 조회 20억건 돌파…김수현 감사패 받아

중국발 신한류 열풍이 일시적 미풍으로 그치지 않고 더욱 확산되고 있다.

최근 들어 '상속자들'이나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처럼 중국 내에서 열풍을 일으키는 한류 드라마 주연배우 김수현(사진)과 이민호에 대한 팬덤은 제2의 한류 열풍을 만들 정도다.

김수현은 '별그대'로 중국 동영상 사이트 내 드라마 최고 조회 수 기록을 세웠다.

지난 6일 중국 베이징 켐핀스키호텔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은 중국 내 드라마 '별그대' VOD 판권을 소유한 동영상 사이트 아이치이로부터 아이치이 드라마 역사상 최다 조회 수인 20억뷰 돌파 기념 감사패를 받았다.

현재 아이치이의 전체 프로그램 다시 보기가 가능한 PPS 서비스에서 "별그대"는 20억 뷰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 한국 드라마 포함 아이치이에서 서비스하는 전체 드라마 중 조회 수 1위를 차지했다.

최근 중국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두 편의 드라마 '별그대'와 '상속자들'의 아이치이 조회 수를 비교한 결과 '별그대'는 9억9000뷰, '상속자들'은 4억8000뷰를 기록했다. 덕분에 중국에서는 김수현이 아이치이의 개별 프로그램에 일정 요금을 부과하는 PPV 서비스의 일등 공신이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다.

이민호의 경우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이 중국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시나, 투도우, 소후, 연예왕, 바이두닷컴 등 중국 포털사이트에는 이민호가 중국을 방문한 것이 아닌 국내 토론회에 참석했을 뿐인데도 관련 기사를 실시간으로 다룰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최근에는 이민호의 중화권 광고 모델료가 현지 스타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대만에서는 몸값이 무려 4000만 대만달러(약 14억원)로 현지의 광고 퀸으로 유명한 린즈링 등의 대스타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

/유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이보영·박하선 '민폐녀'될라

이보영과 박하선이 민폐 여주인공으로 등극하기 일보 직전이다. 두 사람은 각각 딸의 죽음을 막고 대통령을 둘러싼 음모를 파헤쳐야 하지만 납득하지 못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설득력을 잃고 있다.

SBS 월화극 '신의 선물-14일'(이하 '신의 선물')의 김수현(이보영)은 지난 7일 결국 정신병원에 갇힌 채 딸 한샛별(김유빈)의 유괴 사실을 방송으로 전했다.

SBS '신의 선물-14일' 이보영

SBS '쓰리데이즈' 박하선

이날 방송에선 남편 한지훈(김태우)이 샛별 유괴범으로 가장 유력한 의문의 남자와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는 사실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지훈은 샛별을 감싸는 수현을 떼어놓기 위해 그를 정신병원에 가뒀다.

이 과정에서 수현의 흥분된 일련의 행동들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오해받기 충분했고 시청자로부터 "답답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수현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그룹 스네이크의 문신이 범인의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테오(노민우)에게 무턱대고 달려들 때도 보여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딸의 죽음을 막겠다는 모성애가 감성에 앞서 냉철한 이성을 상실한 김수현의 모습과 이보영의 연기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SBS 수목극 '쓰리데이즈'에서 순경 윤보원으로 출연 중인 박하선도 불타는 정의감과 빈번히 터지는 허술한 수사력으로 극의 몰입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윤보원이라는 인물은 방영 초반 대통령 암살 사건에 가담할 때부터 개연성을 잃었다. 시골 동네 경찰에 불과했던 그가 거대 조직에 맞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들썩거리는 모습은 시청자의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설정이다.

문제는 수사를 하긴 하지만 늘 적에게 노출돼 한태경(박유천)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달 27일 방송에서 보원은 양진리 사건을 풀 리철규(장동직)를 쫓다 그가 여인숙에 몸을 숨기고 있다는 걸 태경에게 알리기 위해 공중전화로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철규에게 붙잡혔다. 태경과의 전화는 결국 구원 메시지가 돼버린 꼴이다.

윤보원의 비중은 한태경의 보조역할에 국한되며 극이 진행될수록 점차 미비해지고 있다. 청순가련한 느낌이 강했던 박하선의 연기 변신이 '쓰리데이즈'를 통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종영까지 남은 6회에 달려있다.

/정효진기자 [illegible]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에서 열린 tvN 금토드라마 '갑동이'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감독과 출연진들이 포토타임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애드리브 없다… 진지한 연기 보여줄 것"

성동일 '갑동이'서 형사 맡아…"난 생활 연기자"

배우 성동일이 독특한 연기관을 밝혔다.

8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tvN 새 금토극 '갑동이'(11일 첫 방송) 제작발표회에서 성동일은 전작들과 상반된 카리스마 넘치는 열혈곤 캐릭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나는 생활 연기자라 이 캐릭터 저 캐릭터 가리지 않는다"며 "아이 셋의 가장이라서 주어진 대로 일해야 한다"고 재치 있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갑동이'를 많이 사랑해주셔야 우리 세 아이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덧붙여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성동일은 "얼마 전 화성 사건으로 직위 해제돼 삶지를 잃고 사는 형사들의 인터뷰를 봤다. 이 드라마에서 데뷔 이래 처음으로 애드리브 하나 없는 진지한 정극 연기를 통해 왜 범인을 밝혀내야만 하는지 보여드리겠다"고 말해 배우로서의 진지한 모습도 잊지 않았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갑동이'는 17년 전 가상 도시 일탄에서 벌어진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갑동이'를 추적하는 형사 하무염(윤상현)을 중심으로 각자 갑동이에 대한 사연을 가진 인물들이 얽히고설키며 어떻게 상처를 극복해나가는지를 그린다.

성동일이 연기하는 형사 과장 양철곤은 과거 하무염의 아버지를 용의자로 지목해 죽음에 이르게 한 인물로 윤상현과 성동일의 날선 연기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illegible]

절대권력에 맞서는 김강우·강지환

드라마서 검사·재벌 아들

배우 김강우(왼쪽 사진)와 강지환(오른쪽)이 신분 상승으로 권력에 맞서는 이색 매력을 뽐낸다.

김강우는 오는 9일 첫 방송될 KBS2 수목극 '골든 크로스'에서 강도윤 역을 맡아 권력과 대결하는 검사를 연기한다. 강도윤은 태권도 국가대표를 꿈꾸며 살다가 대한민국 상위 0.001% 권력자에 의해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고 검사로 전향해 복수를 다짐하는 인물이다.

김강우는 지난 7일 제작발표회에서 "의도치 않게 악자 편에 서 있는 연기를 많이 했다. 이상하게 결핍된 역할이 끌린다"며 "이번 작품을 통해 절대 권력과의 싸움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로 역할을 소화할 것을 밝혀 기대감을 높였다.

강지환도 KBS2 새 월화극 '빅맨'에서 고아로 자란 삼류 양아치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상위 1% 재벌 그룹의 장남으로 탈바꿈해 절대 권력에 맞서는 김지혁을 소화한다.

그는 "김지혁은 다양한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캐릭터다.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얼굴을 보여줄 수 있기에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부터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며 "부담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즐기면서 촬영하고 있다"고 출연 소감을 전했다.

'빅맨'은 '태양은 가득히'의 후속작으로 오는 28일 첫 방송되며 강지환의 변신을 통해 이 시대가 바라는 리더상을 해학적으로 그리는 작품이다.

/정효진기자

어버이날 공연 나들이 어때요?

소프라노 신영옥 음악회 '감동 선물'…디너쇼도 풍성

소프라노 신영옥

다가오는 어버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서트가 5월 공연가에 풍성하게 열린다. 따뜻한 봄날, 가족과 함께 음악 나들이에 나서 보는 건 어떨까.

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릴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를 위한 음악회는 가족이 다 함께 볼 수 있는 콘서트다.

이 시대 가장 아름다운 리릭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로 꼽히는 신영옥이 보채린 관객들과 마주해 '어버이' 콘서트로 한 감동의 무대를 선보인다.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이자경 음악감독의 지휘로 펼쳐질 이번 음악회는 자코모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등 어버이날에 어울리는 풍성하고 따뜻한 레퍼토리로 채워진다.

바이올리니스트 임지희와 피아니스트 김아람이 협연한다.

공연 예매는 SAC 티켓(www.sacticket.co.kr 02-580-1300)과 인터파크(ticket.interpark.com 1544-1555)에서 할 수 있으며 티켓 가격은 R석 20만원, S석 12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C석 2만원이다. 각종 할인이 가능하며 초등학생 이상 입장할 수 있다. 문의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www.primephil.net 031-392-6422)

어버이날에는 콘서트뿐 아니라 인기 가수들의 디너쇼도 마련된다.

이날 심수봉은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디너쇼를 열고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사랑밖엔 난 몰라' 등 히트곡들을 들려준다. 주현미는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데뷔 30주년 기념 디너쇼에서 '비 내리는 영동교', '신사동 그 사람', '짝사랑', '잠깐만' 등 지난 30년간의 히트곡을 선사한다.

조영남 역시 8일부터 '아버지의 노래'란 타이틀로 고양아람누리, 성남아트센터, 대구 수성아트피아 등을 도는 전국투어를 진행한다.

/박진영기자 tsk1427@metroseoul.co.kr

주현미

심수봉

조영남

"현빈, 부드럽고 남성적인 힘 느껴졌다"

이재규 감독이 말하는 '역린' 배우 캐스팅 배경

30일 개봉할 영화 '역린'이 현빈·정재영·한지민·조정석·조재현 등 조호화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캐스팅 비화이 공개돼 화제다.

영화를 연출한 이재규 감독은 8일 강인함을 지닌 젊은 왕 정조 역으로 현빈을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 "부드러움 속에서 남성적인 힘이 느껴졌고 그런 점들을 잘 표현할 것 같았다. 연기하고 표현하고 내뱉었던 어투, 표정 이런 것들이 내가 상상한 정조에 너무 가까웠던 것 같다"고 밝혔다.

현빈 역시 "작품 선택을 할 때 시나리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역린 역시 그랬다. 암살의 위협 속에서도 김인함을 잃지 않는 힘이 있는 왕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캐릭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감독은 정조를 살리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게 되는 왕의 그림자 상책 역의 정재영 캐스팅에 대해서는 "우직하게 살아갈 것 같은 한심이 있어서 캐스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역린' 포스터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궁의 최고 아심가 정순왕후 역의 한지민에 대해서는 "선하고 바른 이미지의 배우가 야망이 충실한 인간상을 표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느낌들이 재미있을 것 같았다"며 캐스팅 이유를 말했다.

냉혹한 살수 역의 조정석에 대해선 "사람을 죽이지만 속은 어린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던 차에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금위영 대장 홍국영 역의 박성웅에 대해선 "선악의 경계를 잘 표현하면서도 남자다워서 제안했다"고 전했다. 살수를 길러내는 광백 역의 조재현에 대해선 "말을 툭툭 내뱉을 때 가지고 있는 눈빛들에서 카리스마가 느껴졌다"고 밝혔다.

'역린'은 정조 즉위 1년 정유역변을 모티브로 왕의 암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살아야 하는 자, 죽여야 하는 자, 살려야 하는 자들의 엇갈린 운명과 역사 속에 감춰졌던 숨 막히는 24시간을 그린 영화다.

/박진영기자

'인간중독' 송승헌·임지연 '격이 다른' 정사신

송승헌의 파격 멜로로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는 영화 '인간중독'측이 정사신 촬영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인간중독'은 '정사',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의 각본을 쓰고, '음란서생', '방자전'을 연출한 19금 멜로의 마스터 김대우 감독의 신작이다.

베트남전이 막바지로 치닫아가던 1969년을 배경으로 군 관사 안에서 엘리트 군인인 김진평(송승헌)과 그의 부하의 아내인 종가흔(임지연)이 서로를 향해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드는 감정을 농도 짙은 정사 장면을 통해 표출한다.

정사신 촬영은 파격적인 19금 멜로 연기에 도전하는 송승헌의 연기 변신과 신예답지 않은 대담함을 발휘한 임지연의 뜨거운 열연으로 제작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아름답고 격정적인 정사신을 완성한 데에는 제작진들의 노력도 더해졌다.

'더 테러 라이브'로 감각적인 영글을 자랑했던 변봉선 촬영감독은 "다른 영화들의 정사신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었다. 최대한 배우들이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은 상태로 같이 호흡하는 느낌으로 촬영하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밝혔다.

송현석 조명감독은 "'인간중독'만의 농밀한 화면을 만들기 위해 콘트라스트의 대비나 색감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전했으며, 송현석 조명감독은 진평의 방은 군용차 안에서 벌어진 강렬한 첫 정사신을 위해 따로 차량 내부 세트를 제작하기도 했다.

늑대소년', '주홍글씨'의 김지수 미술감독은 "보통의 정사신은 세트가 협소해 한쪽 벽을 떼고 촬영하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벽과 천장까지 다 덮인 상태에서도 원활히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덕분에 배우들이 스태프나 다른 상황들에 신경 쓰지 않고 연기에 보다 집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진영기자

'인간중독' 정사신을 촬영한 송승헌과 임지연

좌완에도 강해진 추신수

8개 안타 중 절반 뽑아내며 약점 극복… 시즌 세번째 멀티히트도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약점 없는 '명품 톱 타자'로 이름값을 높여가고 있다.

추신수는 8일 보스턴의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1번 타자 좌익수로 출전해 3루타를 포함해 4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시즌 세 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며 타율을 0.308로 높였다.

추신수는 이날도 보스턴 선발투수인 우완 존 래키와 구원투수로 나선 좌완 크리스 카푸아노 등 우투수와 좌투수에게 각각 하나씩 안타를 뽑아냈다. 올 시즌 뽑아낸 8개(26타수)의 안타 중 절반(10타수 4안타)을 왼손 투수와 상대해 쳐냈다.

추신수는 리그를 대표하는 톱타자로 꼽히며 명성에 걸맞은 몸값을 받았지만 왼손 투수에 대한 낮은 타율(지난해 0.215)은 유일한 약점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초반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우려하던 지역 언론의 시선도 바꿔놓았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가 8일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3회 중견수 키를 넘기는 장타를 친 뒤 3루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 /USA투데이 연합뉴스

앞서 1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에서도 1-2로 뒤진 7회 선두 타자로 나와 왼손 제이크 디크먼에게 좌전 동점 안타를 뽑았다. 2-2로 맞선 9회에도 선두 타자로 나와 왼손 투수 마리오 홀랜즈에게 볼넷을 얻어내 승리의 발판을 놨다.

5일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에서는 아메리칸리그에서 수준급 왼손 투수로 꼽히는 데이비드 프라이스를 상대로 안타 2개를 때려내며 좌투수로 추신수를 상대하려는 상대팀의 전략을 흔들어놓았다.

한편 추신수는 이날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시즌 처음이자 통산 22번째 3루타를 때렸다. 통산 세 차례 20홈런·20도루를 달성한 추신수는 올해도 호타준족의 실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3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 추신수는 래키와 풀카운트 접전 끝에 7구째 직구를 때려 중견수 키를 넘기는 3루타를 만들었다. 9회에는 카푸아노의 싱커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었다. 텍사스는 추신수가 만든 찬스들을 살리지 못하고 1-5로 패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연아 아이스쇼는 한편의 오페라

5월 은퇴무대서 오케스트라와 협연

피겨 여왕 김연아(24·사진)가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은퇴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김연아는 다음달 4~6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특설 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삼성 갤럭시★스마트에어컨 올댓스케이트 2014'의 주요 음악을 나인 채임버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선보인다.

새 갈라 프로그램으로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선정한 김연아는 오케스트라 연주로 웅장함을 극대화하고 한 편의 오페라를 보는 듯한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공주는 잠 못 이루고'는 칼라프 왕자가 투란도트 공주에게 건네는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곡으로, 아리아 중 스케일이 크고 멜로디가 화려해 오케스트라의 도움을 받아 더 풍부한 감성을 드러낼 수 있을 전망이다.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은 진성지 음악감독은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만들 것"이라며 "관객과 선수, 오케스트라 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한 만큼 관객의 기대와 호응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비 때문에… 윤석민 트리플A 등판 또 연기

메이저리그 첫 승격을 앞둔 윤석민(28)의 등판 일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볼티모어 오리올스 산하 노포크 타이즈(트리플A)에서 활약 중인 윤석민은 8일 그윈넷 브레이브스(애틀랜타 산하)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로 인해 경기가 취소돼 마운드에 오를 기회는 하루 미뤄졌다.

일정이 꼬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스프링캠프에서도 우천으로 일정이 연기됐던 윤석민은 7일 샬럿 나이츠(시카고W)전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지만 구단 측 결정으로 8일 등판이 확정됐다.

물론 9일 같은 장소에서 그윈넷을 상대로 선발 등판할 예정이지만, 등판 기회가 자주 밀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윤석민은 볼티모어와 3년 계약을 체결한 뒤 마이너리그로 내려왔다. 비자 문제로 팀 합류가 늦었고, 결국 중간 계투로만 두 차례 시범경기에 나서 3이닝 1실점을 기록했다.

첫해 마이너리그 강등 거부권이 없는 윤석민은 "마이너리그에서 많은 이닝을 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벅 쇼월터 감독의 판단에 따라 트리플A로 내려갔다.

결국 윤석민으로서는 메이저리그 승격을 위해 선발투수로서 강렬한 인상을 남겨야 하지만 의외 변수 탓에 일정이 꼬이는 불운을 겪고 있다. /김성훈기자

KBL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5차전, 울산 모비스와 창원 LG의 경기에서 울산 모비스 치어리더들이 벨리댄스를 추고 있다. /연합뉴스

모비스, 2년 연속 우승에 1승 남았다

LG에 짜릿한 역전승

울산 모비스가 프로농구 2년 연속 챔피언 등극을 눈앞에 뒀다.

모비스는 8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챔피언결정전(7전4승제) 5차전 창원 LG와의 홈 경기에서 66-65로 이겼다.

이로써 3승2패가 된 모비스는 남은 두 경기에서 1승만 보태면 2년 연속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차지한다. 프로농구에서 2년 연속 챔피언결정전 우승은 1999년 현대가 유일하다.

모비스의 챔피언 등극은 유리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챔피언결정전 2승2패로 맞선 경우 5차전을 승리한 팀이 우승한 경우는 8번 중 6번이다. 확률로 따지면 75%다.

이날 경기는 막판까지 접전이었다. 두 팀은 5점차 이상 점수를 벌리지 않았다. 경기 종료 21초 전 로드 벤슨이 자유투 2개를 모두 넣어 점수를 66-64로 역전시켜 팀 승리를 이끌었다.

문태영도 혼자 24득점을 쏟아부으며 팀의 에이스 역할을 했다.

LG에서는 제퍼슨이 19점 13리바운드, 문태종이 15점으로 분전했으나 승리를 얻지 못했다.

두 팀의 6차전은 10일 오후 7시 경남 창원체육관에서 열린다. /박진현기자

농구 챔프전 5차전 8일

모비스	23	16	17	10	66
LG	24	12	16	13	65

동부 새 사령탑에 김영만

올 시즌 프로농구에서 최하위의 수모를 겪은 원주 동부 프로미가 김영만(42·사진) 감독대행을 정식 감독으로 승격했다.

8일 원주 동부에 따르면 신임 감독으로 팀 수석코치인 김영만 코치를 감독으로 내부 승격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 3년에 연봉 2억8000만원으로 총액은 8억4000만 원이다.

마산고-중앙대 출신의 김영만 신임 감독은 부산 기아(현 울산 모비스), 서울 SK, 창원 LG, 원주 동부, 전주 KCC에서 선수 생활을 지냈다. 2007년 동부에서 은퇴한 김영만 감독은 중앙대와 여자프로농구 KB국민은행의 코치를 거쳐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원주 동부의 수석코치를 역임했다. /김성훈기자

프로야구 전적 8일

■ 잠실

SK	100	000	000	1
두산	001	000	01X	2

[illegible]

■ 목동

KIA	301	010	000	5
넥센	022	002	111	9

[illegible]

■ 사직

LG	000	020	000	0	2
롯데	200	000	000	0	2

[illegible]

■ 마산

한화	100	001	130	6
NC	000	020	000	2

[illegible]